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4호 HYUNBULNEWS.COM 2025년 1월 8일(음력 12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극락왕생 발원”…불교 ‘여객기 참사’ 추모 물결

조계종 등 종단 총무원장
애도 메시지 잇달아 발표
진우 스님, 현장 찾아 분향
조계종복지재단 유족 지원
사찰 분향소에 추모 행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해 12월 30일 무안 스포츠파크 체육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했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 김가령 · 하성미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불교계가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 등 주요종단 지도자들은 일제히 애도문을 발표했으며,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등 전국 사찰은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29일 발표한 애도문에서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뜻밖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계 당국은 현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고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정치권 또한 국민의 불안을 덜기 위해 희생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2월 30일 애도문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덕수 스님은 “천태종의 모든 종도는 한마음으로 사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하며,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애도문을 통해 “진각종의 모든 교직자와 신교도들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179분의 왕생성불을 서원하며 유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면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속한 원인 규명과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후속 조치,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각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과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희생자 가족들과 이웃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으며,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이 사고로 인해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모든 관련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한국불교 주요 종단이 참여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도 12월 30일 애도문에서 정부 당국과 해당 항공사를 향해 “많은 희생자를 낸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장 찾은 스님들 추모 전해

불교계는 현장을 찾아 추모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30일 오후 2시 무안스포츠파크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분향했다. 진우 스님은 분향을 마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절망하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합동분향소 분향 후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기도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참사 현장 수습과 희생자 신원 파악이 시급하다”면서 “전 국민이 분향소를 찾아 애도하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 촉구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참사 희생자를 위한 49재 등에 불교계의 연대가 필요하면 언제든 사노위에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2월 31일 충북도청 서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종단 스님과 불자들은 부전 용덕 스님의 집전으로 불교의식을 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일심으로 기원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비롯한 서울경인교구 소속 스승들은 1월 1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희생 영식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광주 지역 불교계도 추모에 동참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12월 31일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참배를 올렸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추모했다.

일선 사찰에서 추모행렬도 이어졌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조계사 소임자 스님들과 불자들은 12월 30일 오후 경내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향·헌화·헌다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도 했다.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오고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지만, 금번 제주항공 사태는 기계적 결함, 기상 악화, 새떼와의 충돌 등 변수로 수많은 생명을 잃은 참사”라며 “생명을 운송하는 항공사에서 만의 하나의 변수에 좀 더 완벽을 기했다면, 이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최소화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범어사는 12월 31일 보제루에서 사고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하나 된 마음으로 슬퍼하고 위로하고자 한다”며 “슬픔을 위로받고 회복하시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마음을 모아 다툼을 잊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찾아 유가족 지원 나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유가족과 시민을 위한 지원을 전개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12월 30일 무안스포츠파크 분향소를 참배한 후, 무안국제공항 현장으로 이동해 공항 내 간식부스와 외부 주차장에 차와 음료를 제공하는 부스를 설치했다.

묘장 스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에 깊은 위로 말씀 전하고 싶다”면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자원봉사단을 통해 현장의 유가족과 시민들을 위해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추모시

“국화 향 타고 올라 슬픔없는 땅 이르길”

오랜 세월
국화를 키우면서
울지 못하는
국화는 처음 보았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유치한 장식일 뿐이라고
말하는 국화는
처음입니다.

천국에 닿기를
극락에 이르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애원도
국화를 피어 올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으로 건너는 배가
강에 띄어질 때까지
극락에 오르는 사다리가
세워질 때까지
국화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안의 슬픈 내 형제들이여!
나의 자식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아버님!
나의 친구들이여!

부디, 국화 향 타고 올라
천국에 이르소서
극락에 이르소서
손 놓치지 말고
슬픔 없는 땅에 꼭 이르소서.

다 마른 눈물 자국을
님의 날개로 만들어
날려 보냅니다.

도신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 시인

대한불교진흥원 2025년 상반기

• 4대 공모사업
•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제15회 원효학술상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3월 4일(화)

제10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14일(금)

제10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21일(금)

제11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2월 24일(월) ~ 3월 21일(금)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
학점은행제 학생 모집
2025년 3월 5일 개강
접수 기간 : 2025년 2월 1일 ~ 3월 4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추진과목 포함 강의 진행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2025년 3월 12일 개강
접수 기간 : 2025년 2월 1일~ 3월 11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도록
강의 영상 제공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

“혼란의 시대, 중요한 건 희망·사람”

불기 2569년 을사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

진우 스님 불교의 사회 역할 강조
선명상 보급 국민운동 이어져야
포교·교육분야 혁신으로 내실
“종무혁신을 이루는 종무원” 다짐



조계종이 1월 2일 시무식을 갖고 불기 2569년 을사년 종무행정을 시작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이 2025년 시무식을 갖고 불기 2569년 을사년 종무행정을 시작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새해를 맞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들에게 부처님 법에 대한 확소한 신심으로 희망을 만들고, 함께 미래불교를 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종무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은 1월 2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기 2569(2025)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무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 후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가 매우 혼란한 시기이지만 나를 둘러싼 현상은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선명상으로 흔들림 없이 자신을 가꾸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미래불교를 향한 큰 걸음으로 지난해 종단이 진력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선명상 국민운동을 강조했다. 4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시행되며 종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틀을 바꾸는 만큼, 실질적인 업무 변화로 내실을 채워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많은 공감을 받은 젊은 불교, 힘한 불교를 위한 각종 사회적 포교를 강화해야 우리사회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 역시 전면적인 혁신을 준비해야한다고 피력한 스님은 “출가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 부처님 지혜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행자 교육 시스템부터 기본교육까지의 프로그램을 일대 혁신하는 방안 수립 △교육기관 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추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분야의 질적 도약을 위한 목적기금 설계와 불교박람회, 국제선명상대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개최, 열암곡 마애불 모시기 사업 등 각종 종단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종무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마지막으로 “변화와 혼란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과 사람”이라며 “부처님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고, 도반과 함께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미래 불교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종무원에게 뱀의 해를 맞아 덕담하며 ‘궁사무척(孔蛇無尺)’의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구멍 속 뱀이라고 한다면 종무원의 능력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그 능력을 종단 발전을 위해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무식 참석 대중은 종무원조합 김다영 종무원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사찰과 스님, 신도를 위해 정성을 다해 종무혁신을 이루는 종무원이 되겠다”고 발원했다.

“헌법 위배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대응”

특별법 저지 상임위원회 1차 회의
1월 2일, 공문 발송 경과 보고도
발의 김병기 의원실과 면담 논의

지난해 11월 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두고 조계종이 국회와 논의 단계별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주경 스님, 이하 특별법저지대책위)는 1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입법기관과의 논의 경과에 상응하는 대책 수립을 예고했다.

회의에 앞선 지난해 12월 27일 중앙종회사무처는 특별법 발의 여야의원 66인에게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특별법의 위헌 요소 △종교 형평성 결여 문제 등이 담겼다.

중앙종회사무처는 공문 발송 이후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병기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히며 “실무진을 조직해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스님들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상임위는 실무진을 꾸려 보좌관과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인 만큼 면담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세울 방침이다.

위원인 현무 스님은 “현재 법안은 문체위에 심사 회부된 상태로 아직 본격적인 논의 전 단계이니 면담 결과를 살펴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자”며 “국회와 면담 이후 문체위와 면담까지 진행해 기관들의 대응을 확인하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범불교적 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면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심우 스님은 “국회 심우회 의원 중심으로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밀고나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느껴진다”고 염려했다. 이어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이번 사안을 심려하며 차후 원로회의와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경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종단 전반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위원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가령 기자

진우 스님, 새해 첫 108배…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1월 1일, 조계사서 신년 108배
제주항공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국가 난제 극복 염원 모으자”


진우 스님이 새해 첫날 조계사 에서 108배를 올리고 대웅전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리고 국가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 마음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그리고 조계사 사부대중과 함께 108배를 올린 직 후 대웅전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향을 올리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새해 법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 진우 스님은 대중들에게 국가적 난제 극복을 위해 기도와 염원을 멈추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무안을 찾아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우리들이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자들은 부처님법과 가르침에 따라 실천한다면 을사년 올 한 해 당면한 난제와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욕심을 내려놓고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강조했다. 스님은 “욕심은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르며 이는 다툼과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서 “새해에는 업장 소멸을 위해 매일 하루 5분이라도 선명상을 하고, 기도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를 언급하기도 했다. 스님은 “그물을 지나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한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 업장 소멸하고 올 한해 편안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법문 후 경내 범종루로 자리를 옮겨 새해맞이 타종의식을 가졌다. 이후 만발공양간에서 대중들과 떡국 공양을 가졌다. 조계사는 이날 500인분의 떡국을 준비했다.

임은호 기자

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선출

만장일치로 결의…종회의장 지경 · 사정원장 지운 스님



대한불교삼론종은 지난해 12월 23일 “제11대 총무원장으로 남륜 스님〈사진〉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선출은 총 21명의 종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종회의장 지경 스님 재임 및 사정원장 지운 스님(충주 정암사) 선출 등도 함께 진행됐다.

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2003년 원광사에서 청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이후 은사 계사로 득도 사미계를 수지했다. 대성 스님을 계사로 2009년 구족계를 받으며 대덕 법계 품수했다.

2004년 동국대 사회교육원을 수료한 남륜 스님은 2006년 대한불교염불종 사회부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포항 원광사 주지, 옥천사 주지로 활동했다. 또한, 2013년 불교인권위원회 위원 및 삼론종 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며 종단과 사회를 위한 활동에 헌신했다. 이후 2015년 모법연화사 주지, 2020년 삼론종 교리연구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며 불교계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

남륜 스님은 “삼론종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새로운 총무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생사해탈을 위한 ‘3년결사안거’ 모집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면
반드시 3년 안에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방각서 : 3년결사안거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와 불만을 절대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어떠한 벌칙도 감수하겠습니다.


1000명 앞에서 좌탈입망하신
전강 전법 대선사

지금 불교계에 스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선 대원선사는 현재 90의 연세로, 64년 전인 26살 때부터 120세까지 수명을 정해놓고 사시면서, 간절히 깨닫기를 서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죽비를 잡고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3년결사안거’를 단행하고자 하십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법사이신 전강선사는 1000여 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신 후, 앉은 자리에서 열반에 드셨고, 은사이신 해인사 인곡선사도 나고 죽음을 자재하셨으며, 농선 대원선사님 지도하에 공부한 제자 소진추, 전대각월 불자님도 좌탈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생에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를 따른다면, 누구라도 승속과 종파를 초월해 입방하여 반드시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만 끊어지면 내 부모 처자식은 그만두고 내 몸마저도 한 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나이겠습니까?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지닌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방요건 : 나이 (30~60대 남 · 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 제출서류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 접수기간 2024. 09. 01 ~ 2025. 12. 31 / 문의 010-8670-1445

홍대선원 3천배 클럽 회향…“2025년도 정진”

1월 1일, 경내 법당서 회향식
회향 기념 당일 3000배 정진
6만여 배 수행한 불자 ‘눈길’

2023년 12월 시작된 절수행
1년간 120여 절 도반 동참
“무한한 ‘마음의 힘’ 회복해”


서울 홍대선원은 1월 1일 경내 법당에서 ‘저스트비 3000배 클럽’ 1주년 회향식을 봉행하고 회향 기념 일일 3000배 정진을 진행했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1년간의 3000배 수행으로 ‘나’를 내려놓고 무한한 마음의 힘을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2025년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첫날, 차디찬 칼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에도 홍대선원 법당은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후끈 달아올랐다. 1년간 이어져온 ‘저스트비 3000배 클럽’이 회향일을 맞아 ‘일일 3000배 정진’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20여 명의 동참 대중들은 터질 것 같은 허벅지, 휘청거리는 다리를 붙잡으며 좌복에 연신 땀에 젖은 몸을 던졌다.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1월 1일 경내 법당에서 ‘저스트비 3000배 클럽’ 1주년 회향식을 봉행하고 회향 기념 일일 3000배 정진을 진행했다.

저스트비 3000배 클럽은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과 송산하 스태프의 합작 프로젝트로, 2023년 12월 3일부터 시작했다. 매달 스스로 3000배 수행을 약속하고 지켜냄으로써 자신을 믿는 ‘마음의 힘’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다. 국적·종교·연령을 초월한 120여 명의 ‘절 수행 도반’들이 1년간 3000배 클럽에 참여했다.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3000배 클럽을 개편한 ‘다함께 300배’ 프로그램을 진행, 절 수행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회향사에서 “그동안 여러분은 두 다리를 잃을 각오로 ‘3000배’라는 약속을 지켜왔고 이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스스로를 믿게 되면 마음의 힘이 저절로 커져 무엇이든 할 수 있다. 2025년 새해, 그 힘을 바탕으로 이루고 싶은 모든 일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해, 총 6만여 배를 성만한 불자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꾸준한 수행 습관을 만들기 위해 절 수행을 시작한 김인수(58) 불자는 “절을 할 때마다 화내고 속상한 마음을 모두 털어버리고 잔잔한 본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여법한 시간이었다”며 “새해에도 나를 돌아보는 3000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원래 하루 200배씩 했다면 올해는 하루 300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저스트비 3000배 클럽은 새해부터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편, 절 수행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산하 스태프(28)는 “3000배 클럽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절 횟수는 중요치 않다”며 “새해에는 매주 월요일 ‘300배 클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절 수행을 하게끔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마다 ‘일일 3000배 정진의 날’을 만들어 3000배 클럽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은 3000배 클럽을 회향한 사부대중을 위해 새해 떡국을 공양하기도 했다.

대궁당 종상 대종사 49재…“대종사 유훈 계승”

12월 26일, 불국사 무설전서
사부대중 1000여 명 운집·추모
생전 법문 엮은 법어집 봉정


대궁당 종상 대종사 49재에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종단 발전, 불교 언론 부흥, 지역 포교, 나눔과 봉사 전법 등 분야를 넘나들며 한국불교 중흥에 매진한 대궁당 종상 대종사의 49재가 지난해 12월 26일 경주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더불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해 종상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49재는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의 축원으로 시작됐다. 이어 종상 대종사의 영단에 선원장 종우 스님이 헌향하고 대중들이 헌화하며 대종사의 사바세계에서의 마지막을 추모했다.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행장 소개로 종상 대종사의 불사 원력이 서린 삶을 기렸다.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종상 대종사는 인연법에 따라 이 사바세계에 도달해 천년고도 경주 불국사에서 불교의 자긍심을 지켰고 사회에서 불교가 해야할 일을 빠짐없이 해나가셨다”면서 “이제 종상 대종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9일째로 연화장 세계에서 충분히 안락하셨을테니 이제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 불국토를 지켜달라”고 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상 대종사의 영전에 삼배를 올린 뒤 추모사를 올렸다. 진우 스님은 “북쪽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부대중을 위해 천 가지, 만 가지 말씀으로 남쪽을 가리키던 종상 대종사의 자비하신 언어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지남(指南)으로 남았다”면서 “열반 이후에도 언설이 아닌 묵언으로 전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 전해주실 것”이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종상 대종사는 은사스님에게 지극했던 제자이자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엄격했으며, 대중들에게는 자애로운 스승이셨다”며 “이제 남은 대중들이 대종사가 이끌던 불국사를 지켜야 하지만,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어간다면 불국사는 언제까지나 중생들의 의지처이자 한국불교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종상 대종사 문도를 대표해 의왕 청계사 주지이자 종회의원 성행 스님은 49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행 스님은 “잘 모시지 못한 불효는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을 것 같다”면서 “한 생을 머무셨던 자리에는 고요와 적막만이 가득하지만, 스스로 몸을 낮춰 중생과 더불어 사신 뜻과 가르침을 잘 받들어 우리 문도들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종상 대종사가 생전에 쓴 원고와 법어를 엮은 법어집 〈무공저〉 봉정식도 이어졌다. 경주=김가령 기자

국보부터 명승까지 불교유산 지정 잇달아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예고
유가사 괘불도 등 2점 보물
강진 백련사 일원 명승 지정


국보로 승격 예고된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사진제공=국가유산청

불교문화유산이 국보와 보물, 명승으로 잇따라 지정 예고되면서, 그 역사·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져 탁월한 조형미를 간직한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국보로 승격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전남 곡성 태안사에 위치한 보물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 지정 예정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동리산문(桐裏山門, 태안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파)을 세운 적인 선사 혜철(慧徹, 785~861) 스님의 부도다. 여러 개의 석재를 짜 맞추어 조립한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한 팔각원당형 부도탑의 전형으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양각돼 있다. 특히 비문에 시호와 탑의 건립 시기(861년)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 석조미술의 편년 기준작 역할을 한다. 국가유산청은 “기단 주변에 남아 있는 4개의 주초석은 신라시대에 건립된 승탑 중 유일하게 예불 행위를 위한 탑전(塔殿, 탑을 외부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불을 하기 위한 건축물)시설을 갖추었던 흔적으로 추정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12월 31일에는 1993년 도난됐다 2020년 환수한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와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됐다.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는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84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영산회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불화다. 도난 과정에서 화기 일부가 훼손돼 이 불화를 그린 스님들은 알 수 없다. 다만 상호의 형태, 신체의 비례와 표현 감각, 각 도상의 배치와 곳곳에 사용된 다양한 문양 소재 등을 살펴보면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유성 화파와 관련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괘불도는 석가여래를 압도적으로 크게 그리고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화면 상단에 작게 배치한 삼신불 형식을 띤다. 본존이 앉아 있는 형태인 좌상으로 표현된 괘불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특히 이 시기의 괘불이 10m를 넘거나 이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인데,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는 폭 약 4.5m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은 당나라 징관(澄觀, 738~839) 스님이 지은 ‘화엄경수소연의초’에 대해 송나라 정원(淨源, 1011~1088) 스님이 상세하게 해설을 단 ‘대방광불화엄경소’ 전체 120권 중 권 118에 해당하는 불경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대각 국사 의천이 고려로 귀국할 때 송의 정원이 한 질을 선물로 주었고, 이에 의천이 항주의 각수인 엄명 등에게 판각을 부탁해 1087년(고려 선종 4) 3월에 송의 상인 서전 등이 2900여 경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고려로 전해졌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경판을 가지고 책을 찍었으나 일본이 여러 차례 경판을 요청해옴에 따라 1424년(세종 6) 다른 경판들과 함께 일본에 하사한 이후로 더 이상 인출본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대각 국사 의천이 완성하고자 했던 대장경의 주석서 집성 과정과 경판의 후대 전래, 이와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며 “한·중·일 삼국의 불교 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1월 1일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다.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다. 자연적인 차나무 자생지와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붉은 동백꽃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김내영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이 정한 기본 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4. 12. 16(월) ~ 2025. 02. 07(금)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5. 02. 14(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재가자로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필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3. 기본증명서 1부(필수) 4. 사진: 반명함판 2매(필수)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5.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6.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 02-745-2030,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성금 : 20 만원
■ 등록성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

“월간 ‘불교’, 만해 스님 통해 대중불교 실현”

태고종, ‘창간 100주년 학술대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
전문가들 ‘불교’ 역사·시사성 조명
상진 스님 “만해 사상 新조명 계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12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월간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24년 창간 100주년을 맞은 태고종 총무원 발간 월간지 〈불교〉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대중불교 실현을 위해 주목했던 매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월간 〈불교〉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월간 〈불교〉가 갖는 역사성과 시사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월간 〈불교〉 발간의 의미와 시사점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구원은 ‘대중불교의 원류와 계승-월간 〈불교〉 속 만해 한용운의 발자취’를 통해 월간 〈불교〉의 시대별 발간 과정과 그 안에서 만해 스님의 유훈들이 어떻게 계승돼 왔는지를 살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1924년 불교교단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월간 〈불교〉는 1931년 만해 스님이 사장으로 취임하며 변화를 맞았다. 편집자이자 발행인이 된 만해 스님은 1931년 7월 84·85합호부터 1933년 7월 108호까지 잡지의 간행을 담당했다.

이 시기 만해 스님은 지면을 통해 식민지 조선불교에 내재된 체재의 모순을 갈파하고 불자들의 각성과 계몽을 주장하는 ‘조선불교의 개혁안’ 등의 글을 실었다. 당시 만해 스님 글들의 요지는 정교분리 실현과 사찰령 철폐, 불교계 통일기관 수립에 있다. 이를 통해 “만해 스님이 지향한 것은 조선불교를 대중불교로 전환”하는 데 있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해석이다.

이 연구원은 “만해 스님의 논설은 1910년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설파한 불교의 근대적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식민지 불교정책에 내재해 지속된 모순을 직시하고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주적 개혁안에 중점을 뒀다”며 “1930년대 만해 스님의 〈불교〉는 일제에 대한 저항과 자주적 개혁의 발신처, 민족문화와 불교청년 세력의 숙성소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불교〉는 1933년 7월호 이후 명맥이 끊겼다가 1937년 다시 복간됐고, 광복 이후 1946년에는 제호를 〈신생(新生)〉으로 바꿔 발행됐다. 1959년에는 〈현대불교〉로, 1962년 8월부터는 〈불교사상〉이라는 잡지로 발행됐으며, 1967년부터는 〈불교계〉로 이어졌다.

1970년 5월 문화공보부로부터 정식 종단 등록을 마친 태고종은 곧이어 기관지로 지금의 월간 〈불교〉를 발간했다. 태고종은 발간한 〈불교〉도 종조 태고 보우 국사와 함께 만해 스님의 유훈 역시 계승코자 노력했다. 〈불교〉는 1970년대 만해 스님의 행적 발굴, 불교유신론 등의 소개, 만해 사상 관련 논설,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엮은 연재만화 등을 게재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에 나타난 만해 스님 사상을 주목했다. 상진 스님은 “1924년 창간된 〈불교〉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그간 불교지는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민족사의 어려운 시기에 창간돼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널리 알리는 문서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폭넓은 세계관으로 한국불교의 개혁을 이끌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발자취가 새롭게 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사, 땅 한평 불사로 ‘사격 진일보’

1월 1일, 경내 공덕비 제막
1년 8개월간 988명 동참해
산림청 소유 땅 매입 완료



도선사가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이룬 ‘땅 한평 불사’를 회향하며 사찰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 불자들의 보시와 나눔 원력으로 그간 임대로 사용하던 땅들이 온전히 도선사 품 안으로 돌아오면서, 사찰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신행 중심지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1월 1일 경내 사천왕문 옆 공덕비 앞에서 ‘땅 한평 불사 공덕비 제막식’을 진행했다.〈사진〉 ‘땅 한평 불사’는 안양암과 사천왕문 주변 산림청 소유의 진입로(3230㎡, 약 978평)를 도선사 소유로 매입하기 위한 불사다. 2022년 시작돼 1년 8개월간 988명이 동참했고, 그 헌신과 나눔의 결실을 기리고자 공덕비를 세워 이날 제막식을 가졌다.

도선사는 그간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하던 산림청 소유 토지 매입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서울국유림 관리소와 협의를 시작했다. 적합한 토지를 도선사가 매입해 해당 토지와 교환키로 합의했고,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땅 한평 불사’가 전개됐다.

지난해 9월 도선사는 여주 및 양평 일대 4필지를 매입한 후,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와 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 2024년 12월 23일 산림청과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31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다.

주지 태원 스님은 “국가 소유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임 주지 도서 스님과 대중스님, 신도분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 이번 불사를 성공적으로 회향할 수 있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토지 매입은 도선사의 다양한 불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안양암을 전통불교문화체험관으로 변모시켜 다양한 사람이 찾고 신행생활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 “세계 1등 조계사로!”

12월 31일 대웅전서 취임법회
개금불사 기금 1억원 전달키도
28대 신도회 지도부에 부촉장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은 개금불사 기금 1억원을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에게 전달했다.

“세계 1등 사찰 조계사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 합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27대에 이어 28대 조계사 신도총회장에 취임한 이승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경내 대웅전에서 열린 ‘조계사 제28대 신도회 무애 이승현 신도총회장 취임법회’에서 2년간 신도회를 이끌어갈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취임법회는 막중한 소임에 임하는 각오를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이승현 총회장은 “한국불교의 중심 조계사에서 모든 불자의 염원을 담아 ‘세계 1등 조계사’를 목표로 내실을 다지며 외연 확장에 진력하겠다”고 서원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이 회장은 “조계사는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의자를 놓고, ‘베이커리 조’ 운영으로 맞춤형 포교를 꾀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젠 외형 변화에 맞춰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발전된 외형에 걸맞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모범이 되는 신도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신도회의 활동 계획도 전했다. 이 총회장은 “조계사 도량 성역화 불사를 이뤄내는 것은 물론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신도조직를 꾸리고, 국민 안정과 평화를 위한 선명상 대중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도회를 중심으로 갈등을 화해하는 중심이 돼 조계사 발전과 세계의 화합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 총회장은 ‘조계사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원년의 해’를 맞아 개금불사 기금 1억원을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제28대 신도회 지도부에 대한 부촉식도 진행됐다. 주지 담화 스님은 이승현 신도총회장을 비롯해 김의정 명예회장, 박영환 자문위원장, 도영숙 사무총장, 정종란 남부법회장, 박정례 중부법회장, 홍순분 전각의례법회장, 장경태 종무지원법회장, 박경숙 포교법회장, 박수정 사회법회장, 서정숙 문화법회장, 김경숙·김상민·이윤희 부회장, 함정희·김춘미·변임숙 부자문위원장 등 임원들에게 부촉장을 전달하고 신도들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유주연 대불련 회장 “쉬운 불교 만들 것”

12월 28일 정기총회서 당선
와선대회·SNS 활성화 추진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제63년차(2025년) 중앙회장에 유주연 창원지부장이 선출됐다.〈사진〉

대불련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목)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2년차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주연 지부장을 제63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유주연 중앙회장 당선자는 참석 대의원 98명 중 찬성 89표, 반대 7표로 당선됐다.

유주연 중앙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2025년을 시작으로 대불련이 한층 더 성장하고 여법하게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포교와 전법에 힘쓰고 새롭게 불교를 접한 대학생 청년 법우들이 즐거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중앙회장은 ‘가벼운(Positive) 불교, 깊어지는 우리’를 주제로 한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가벼운 불교’는 쉽고 재밌는 불교를, ‘깊어지는 우리’는 불교와 법우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공약의 핵심은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고 말했다. 누워서 명상하는 와선명상대회, 신입 법우를 위한 불교 입문서 제작, 대불련 SNS·유튜브 활성화 등을 구상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출강 및 통신 2025학년도 제34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전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4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02)733-1959
720-1836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2024년 12월 7일 열린 '람림' 보살계 수계법회. 법회는 '보리도차제(람림)' 과정에서 수학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봉행된다.



불교수행자 양성과정 1학년 학기말 시험을 치루는 수강생들.



연례적으로 봉행되는 대비관음불 모래만다라 성취기도. 의례에 따라 여법하게 모래로 조성된다.

한국서 만나는 티베트 불교 교육의 진수

'삼학설행사' 불교 수행자 양성과정 현장

박영빈 객원기자

"사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작용하는 것입니다."

"작용하는 것이면 모두 사물에 충족합니까?"

"되(그렇다)."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삼학설행사(탑숨셰둡링). 기초 인명학 수업에 참석한 법당에서 불자들이 삼삼오오 조를 만들어 대론을 하고 있다. 일부 용어들은 티베트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모두 진지하게 논서를 보며 문답을 이어나간다.

2014년 개원한 이곳은 남인도 간댄사원에서 온 텐진 남카 스님이 지도하는 티베트 불교 사원이다. 사원의 이름은 달라이라마가 지은 것으로 '삼학을 설하고 실천하는 도량'이라는 뜻. 도량의 이름에 맞춰 불자들의 교육과 수학을 최우선하는 이곳에선 2024년 4월부터 티베트 불교 전통 강원체계에서 중요한 핵심들을 뽑아 한국인들 맞춤 4년 과정의 '불교 수행자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지난해 12월 14일 90명의 불자들이 1학년을 마쳤다. 주지 남카 스님은 이 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한 목적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수행을 통해 해탈과 성불에 이르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불교 수행자 양성과정은 '불교철학', '인명학', '보리도차제(람림)', '밀교'의 교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법회와 법문을 진행하던 것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신규 등록자는 온라인, 기존 등록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이뤄진다. 또한 격주로 스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수강생 각자의 이해를 돕는다. 한 학기에 4개월 가량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실제 학교 교과과정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방학과 기말시험이 있으며 출석률 등의 성적에 따라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과정은 불교의 교학과 수행의 균형을 맞추고 그 이해를 심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불교철학'은 수많은 불교의 경전과 논서들에서 말하는 철학체계를 단계적으로 수학해 교학의 체계를 논리적이고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달라이라마가 기획한 〈불교과학총서〉를 교재로 이용하는 이 강좌는 불교철학의 4대학파로 불리는 경량부, 설일체유부, 유식, 중관의 순서로 익히게 된다. 주 교재인 〈불교과학총서〉는 총 4권으로 이중 1권인 '물질세계'편은 2022년 한국어로도 번역돼 출판된 바 있다. 2권은 정신세계, 3~4권은 사상적 견해를 다루며 현재 삼학설행사에서 번역 중이다.

'인명학'은 인도불교에서부터 전해오는 불교논리학이다. 흔히 티베트 사원에서 박수를 치며 격렬한 대론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인명학을 수학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인명학의 기초인 섭류학(攝類學)을 수학하며 경량부와 유식의 공통된 견해를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대론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

텐진 남카 스님 지도하는 교육도량

2024년 4월부터 시작…4년 과정

티베트 강원 체계 핵심 선별 교육

교학 실천 위한 명상 교육도 진행

오는 3월부터 신규 양성과정 시행

는 한국어로 대체하기 어려운 관계로 티베트어를 그대로 사용되지만 수강생들은 "논리를 익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며 오히려 주고받는 대론이 즐겁고 재밌다는 반응이다.

'보리도차제'는 14세기 티베트 최고의 고승으로 꼽히는 쫑카빠 롭상닥빠 대사의 저술로 초발심의 귀의부터 보살행의 실천, 마음 닦기, 성불에 이르기까지 수행의 과정을 각각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보리도차제〉는 국내에 여러 차례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으나 삼학설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하고 정리한 교재를 이용한다.

'밀교' 과목은 밀교의 명상법이나 철학체계 등을 수학하는 과목으로 신입생에게는 바로 열리지 않으며 '불교철학'과 '보리도차제'의 두 수업에서 모두 일정 단계까지 수학한 후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삼학설행사에서는 이 같은 교육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특정 주제에 관한 세미나나 수강생들 간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명상특강이나 보살계 수계법회 등을 개최한다. 수강생들은 "일반 사찰에서도 보살계 수계법회 등이 있지만, 오랫동안 직접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듯 수계를 받으니 더욱 의미가 깊고 감동도 남다르다"며 소감을 전했다.

1학년을 모두 마친 수강생들의 감회도 남달랐다. 특히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 덕에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좋았다는 소감도 있었다.

과정에 참여한 한 스님은 "출가자로서 오랫동안 교학을 연찬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핵심들을 골라서 공부하기는 어렵다. '족집게 강의'란 것이 이런 것 아닐까 싶다. 이 배움이 참다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수강생은 "불교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환희심을 가지고 공부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학에 무지했는지, 수행의 바른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지 실감했다. 가슴 깊숙이 표현하기 어려운 짜릿한 감동이 이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소회했다.

삼학설행사는 기도정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카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교학을 배워야 하고, 이 교학을 꽃피우는데 뒷받침 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다. 지혜와 공덕은 두 다리와 같이 어느 한쪽이 부족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복덕구족을 위해서 삼학설행사에서는 연례적으로 '대기원법회'와 '대비관음불 모래만다라 성취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대기원법회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발전하고 널리 펴지길 기원하는 기도다. 〈보리도차제〉를 저술한 쫑카빠 대사가 시작한 기도법회로 티베트 불교 사원들에서 매년 초에 봉행한다. 남카 스님은 "한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기도법회를 보았지만 불법의 지속과 발전을 바라는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이에 티베트에서 봉행하는 대기원 법회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비관음불 모래 만다라 성취기도'는 십일면천수천안관음불의 모래 만다라를 조성하고 봉행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관음보살이라고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밀교의 영향으로 이미 부처의 경지에 오른 본존으로 보기에 관음불이라고 칭한다. 삼학설행사의 모래 만다라는 시작부터 회향까지 모든 과정을 밀교의 의궤에 맞춰 봉행한다.

한편, 삼학설행사는 불교수행자 과정의 신규 과정을 오는 3월 개강한다.



11돌 쿠무다, '문화·예술 전법' 새 장 열다

쿠무다 콘서트홀서 11주년 기념식
수불 스님, '육조단경 강설' 회향
대불련 공모전 시상식 상장 수여해
한국심장재단에 1000만원 자비나눔
이승기 출연 축하무대 피날레 장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송정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쿠무다 개원 11주년 및 명경문화재단 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주석 스님이 개회사를 전하는 모습.

"문화와 예술로 전법의 꽃을 피워온 쿠무다의 11주년을 축하합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는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송정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쿠무다 개원 11주년 및 명경문화재단 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기념식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전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하림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동학사 주지 경원 스님, 법주사 수정암 성정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사부대중은 새로운 문화포교의 가능성을 보여준 쿠무다와 이사장 주석 스님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념행사는 수불 스님의 '육조단경 강설' 회향 법회로 시작됐다. 수불 스님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10개월 동안 〈육조단경〉을 강설했다. 회향식에 이어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환영사, 인사말, 치사, 축사, 경과보고, 대불련 공모전 시상식, 사홍서원,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오늘 육조단경 강설 회향이 더해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 해 동안 법석을 이끌어 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11주년을 맞은 쿠무다가 있기 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도량이 늘어나고 부처님 법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는 치사를 통해 "주석 스님은 불교 문화 예술의 혼을 담아 미래세대를 위해 쿠무다를 세웠다"며 "앞으로 더 큰 일을 해 낼 것이라고 믿으며 불교문화예술 콘텐츠가 하얀 연꽃으로 아름답게 피워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행사는 명경문화재단과 쿠무다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기획한 '제1회 한국불교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위한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은 곽다훈(전남대, 마음쉬는 곳), 최우수상은 정선아(서울여대, 불교학생회 세주), 우수상은 남형철(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오태중(전북대, 불교학생회), 유정현(동국대, 동불)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쿠무다는 한국심장재단에 치료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심장병으로 힘겨운 환아에게 희망을 전했다. 기념식 후에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축하 무대를 선사했다.

쿠무다는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해 부산 달맞이 언덕을 거쳐 송정에서 전법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조계종 대운사를 뿌리로 둔 문화예술사단법인이다. 대운사가 법회와 기도 등 신행 생활을 오롯하게 체험할 수 있는 법향(法香) 가득한 기도 도량이라면, 2013년 부산 송정 해수욕장 뒤 아담한 베이커리 북카페로 시작한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현대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불교와 현대사회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뜻하는 '쿠무다'는 북콘서트, 전시회,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문화예술 분야 인재양성 후원사업 등 복합문화공간에서 쌓아 온 문화포교 노하우를 바탕으로 3년 가까운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12월 9일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를 세상에 드러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명경문화재단을 설립해 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또 송정 대운사를 통해 기도와 신행의 장을 펼치며 전법과 포교의 장도 확장해 가고 있다. 이 같은 원력행으로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올해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2024 슈퍼스타종로 국회의장 공로장' 등을 수상했다.

한편, 쿠무다는 12월 1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로터스 봉사단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쿠무다 부설 로터스 봉사단 창단 기념 사무소 현판식 및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로터스 봉사단'은 앞으로 쿠무다 인근 지역 내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기지로 활동한다. 봉사단은 독거 어르신과 결손 가정 등 송정동 108세대에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격주 1회 배달한다. 밑반찬 전달은 다음해 1월부터 시작하며 3월 부터는 주 1회로 확장한다. 아울러 무료급식 및 새해 첫날 떡국 나눔도 추진 중이다. 쿠무다는 현재 봉사단원 50명을 구성, 활동 시작을 알렸으며 봉사자 및 후원자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30일 대장정 회향

12월 30일 회향법회 봉행해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추모


통도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설법전에서 '불기 2568년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한 달간 이어온 화엄산림의 대장정을 원만 회향했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지난해 12월 30일 설법전에서 '불기 2568년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회향 법어, 체육인 불자 장학금 전달, 인사말, 영단 참배, 위패 봉송 순으로 봉행됐다.

회향을 맞아 수행정진을 독려하는 종정 성파 대종사의 법문에 불자들은 연이어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성파 대종사는 "한 달 동안 화엄산림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량하고 맑음이 가득할 것이다. 많은 법사스님들의 법문을 잘 듣고 새겨 무엇보다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 "우주 최고의 산림이 화엄이다. 우주를 경영하는 것이며 우주는 각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마음을 잘 살아 경영하면 가정과 사회가 평화롭게 된다. 우주가 나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법문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현재 국가 애도 기간이다. 오늘 화엄산림회향법회에 동참한 여러 불자들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희생된 고인의 왕생극락을 함께 빌고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화엄산림법회 회향을 맞아 경남도체육인불자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고성여자중학교 곽도영 학생 외 9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BS불교방송 부산, 신임 사장 원허 스님 선임

제2차 운영위원회서 만장일치로



BBS불교방송 부산(이하 BBS부산) 신임 사장에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BBS부산은 지난해 12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관 2층에서 '2024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원허 스님을 신임 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BBS부산 신임 사장 원허 스님의 임기는 12월 24일부터 4년간이다.

이번 BBS부산 사장 선출은 지난 12월 17일 BBS불교방송 신임 이사장에 수불 스님(전 BBS불교방송 부산)이 선임됨에 따른 후속 인사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국제종교연합 창립

12월 30일 부산시청서 창립총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연합 활동
초대 이사장에 정여 대종사 추대



국제종교연합이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제종교연합(이사장 정여 대종사)이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제종교연합은 남북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종교연합 단체이다.

창립총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영령들을 애도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도의식에 동참했다.

이날 임원선거를 통해 초대이사장에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상임고문 김계춘 국가원로회 원로 신부, 상임회장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임영문 전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신요한 안락성당 주임신부가 선임됐으며, 운영위원장에는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추대됐다.

국제종교연합 초대이사장 정여 대종사는 "며칠 전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모든 국민들이 슬픔과 아픔에 휩싸여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며 소중한 그분들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할 수 있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드린다"고 추모했다.

이어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다. 지금 이때 종교간 화합이 소중하고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평화를 이끌어가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종교연합은 종교간 평화를 위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며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세아향(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토크'에서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세상에 수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손가락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그 손가락을 한곳으로 모아 주먹을 불끈 쥘 때 힘이 있는 것처럼 종교간 화합을 이루며 세계는 한송이 큰 꽃이라는 세계일화(世界一花)처럼 나라도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화엄승가회·부산불교교육대학 자비나눔

사상구청에 라면 700박스 전달
취약계층 700세대에 지원 예정



자비나눔공동체 화엄승가회(회장 자인 스님)와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가 연말연시를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사상구청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라면 700박스(8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사진〉 성품은 사상구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7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자비나눔은 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매년 실시하는 '살기좋은 부산 만들기 연말 이웃돕기' 일환으로 마련됐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자비 나눔 실천으로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며 따뜻한 온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살기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으로 매년 연말마다 진행해온 나눔이다. 봄에는 부산시목 동백나무 묘목 3000그루 나눔을 진행했고 이어 사상구 지역 취약계층에 라면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올해 연말은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혼란해 시민들의 마음이 더욱 어둡다. 따뜻한 공양으로 마음을 녹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소중한 나눔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사업 활성화로 모두가 힘나고 행복한 사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락서암, 제6회 장학금 전달식

총 21명에 1450만원 전달



청소년 학생들의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 대신동 락서암(주지 수월 스님)이 지난해 12월 27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6회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 무형문화재 영남범패 교수사 성림 스님, 지우 스님, 성담 스님, 성암 스님, 춘제 스님, 보광 스님, 보덕 스님, 선혜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6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5명에게 각 30만원을 전달해 총 21명에게 장학금 1450만원을 전달됐다.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은 "오늘 학생들을 만나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자 오늘을 위해 열심히 잘 살아서 부처님께도 감사한 마음이다"며 "인재불사는 정성을 모아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장학금 마련을 위해 정성을 모아 후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읽어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락서암은 2019년부터 매년 종교에 관계없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장학금 인재불사를 위해 신도들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한빛마음회 후원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늘어 의미가 깊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상경찰서경승단, 장학금·자비물품 전달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과 함께



사상경찰서경승단(단장 성문 스님)과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회장 심인택)는 인재불사와 자비물품을 전달하며 추운 겨울에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와 사상경찰서경승단은 지난해 12월 26일 감전제일새마을금고 4층 대강당에서 장학금 및 자비물품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사상경찰서경승단 실장 성문 스님과 총무국장 자륜 스님, 은적 스님, 심인택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강용창 부산경찰청불자회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이종구 사상구의회의장, 윤태한·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봉행사 △장학금수여 △격려사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김지현(덕포여중 1) 학생 외 초·중·고·대학생 총 32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960만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또 힘든 겨울을 지내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비물품 라면 100박스도 함께 전했다.

경승단 실장 성문 스님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으로 어떻게 갈고 다듬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무한히 바뀔 수 있다. 무한한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되시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심인택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장은 "오늘 장학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게 우선 축하의 말을 전한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잘 성장해주길 기대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학생들과 이웃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시니 사상구가 더욱 사람사는 도시가 되는 것 같다. 보내주신 성품은 두루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와 사상구경찰서경승단은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불사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물품을 전하며 부처님의 자비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 문화예술 거점 '만디' 우뚝 서다

지역 복합문화공간 표방 '기대'
지상3층 지하1층 규모 조성돼
성파대종사 작품 미디어아트化
자체 축제 및 전시 계획 추진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12월 23일 태화문화체험관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울산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가 2022년 4월 첫 삽을 뜬지 2년 8개월 만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이사장 지선 스님. 백양사 주지)는 12월 23일 태화문화체험관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울산시 중구 백양로 62 백양사 주차장 부지에 세워진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5,950㎡(약 18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은 몰입형 미디어아트 교육관과 전통문화관광 예술전시·체험관, 제2전시관이 들어섰다. 2층은 사무실과 카페 휴게 데크(루프탑), 3층에는 BBS 울산불교방송, 선명상 교육관, 문화교육관, 사무실, 지하 1층은 기전실과 주차장이 갖춰졌다. 특히 명상센터는 명상뿐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은 버슴새의 풍물공연, 백양사 삼보합창단의 음성공양, 소프라노 채미영 공연, 고금 스님의 법고시연이 식전공연으로 펼쳐졌다.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이사장 지선 스님은 환영사에서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대 문화와 예술의 멋이 넘치는 공간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며 "불자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백양사는 울산 시민들과 수많은 지역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 주는 부처님의 도량"이라며 "만디는 앞으로 21세기 복합문화행사를 울산시민이 체험하고 누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축사에서 "울산시민들이 만디에서 삶의 힘과 마음 건강을 얻길 기원한다"며 "울산시민이 만디와 함께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는 데 함께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은 "울산시민이 만디를 통해 최상의 경지인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불교계가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만디는 경상도 말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한다"며 "복합문화공간 만디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안식처와 깨달음을 얻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앞으로 '만디'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선과 예술의 세계를 미디어아트로 만들어 보여줄 예정이다. 미디어아트뿐 아니라, 유명 작가 초청전, 지역 청년 기획전, 지역대표 작가전, 아트페어 등을 계획 중이며, 클래식, 대중음악 공연과 북콘서트, 대중 법회·강연 등도 준비하고 있다.

자체 축제도 기획 중이다. 명상·연등축제, 빛의 정원&가든 페스티벌, 맥주-막걸리 축제와 불교박람회, 키즈박람회, 발효박람회, 셀피박람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시설 '금선백련마을' 새 보금자리 마련

12월 24일, 준공개원법회
의무 · 상담실 등 환경 조성


금선백련마을는 12월 24일 새롭게 마련한 전주시 완산구로 이전하고 준공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전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금선백련마을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준공법회를 열었다. 금선백련마을은 전주에서 유일하게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금선백련마을(원장 김찬우)는 12월 24일 새롭게 마련한 전주시 완산구로 이전하고 준공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금선백련마을은 2016년 중증장애인과 직원이 생활하던 자림원이 문을 닫자, 전북도와 전주시의 요구로 전주시 평화동에 사회복지법인 송광의 산하시설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장애인과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선백련마을은 전주시 완산구에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했다. 대지 2200㎡(665.5평)에 건평 863.22㎡(261평)으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해당 건물은 지상 2층으로 1층과 2층에 각 7개의 생활실과 의무실, 상담실, 활동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직원휴게실, 식당 등을 갖췄다.

이날 준공식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비롯해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 익산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 남원사 주지 관성 스님 등 금산사 본말사 스님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성규 의원 등 각급 기관장들과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선백련마을 대표이사 덕산 스님(금선암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저와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생활인들이 지내는 동안 부처님이 자비스러운 품 안에서 정답게 살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송광 이사장 도영 스님(금산사 조실)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곳 생활인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야 할 사람들"이라며 "이분들이 건강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에서 대승불교는 '나'가 아닌 남을 위한 불교며,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시설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생활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하길 바란다"고 시설 구성원을 축원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그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인들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을 공동체로 받아주신 독배마을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허당 지성 대종사 27주기 추모재 봉행

조계종 제24교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12월 29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태허당 지성 대종사 27주기 추모재와 2024년 동안 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태허당 지성 대종사 열반 27주기 추모재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법경 스님, 법만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각 말사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이 참석해 태허당 지성 대종사의 유지를 기렸다.

경우 스님은 "스님의 경책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하위하라, 제11회 심우문화상 수상

심우문화재단 시상식 개최
상금 3천만원 스리랑카 후원



국내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 사원이 한국과 다문화 국가 간 불교문화 상호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1회 심우문화상을 받았다.

심우문화재단(이사장 채훈관)은 마하위하라 사원(주지 담마끼띠 스님) 대웅전에서 '제11회 심우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채민성 심우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마하위하라 사원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사회의 등불을 밝혔다"며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해 사회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점을 인정해 심사위원 전원의 수상에 찬성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한국생활 18년 동안 여러상을 받았지만, 상금을 받기는 처음"이라며 "상금은 스리랑카에 도움이 되도록 쓰일 것이다. 내년에는 부처님의 가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상식 행사에는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 아산 월주산사 공운 스님, 화성 홍법사 성은 스님, 채훈관 심우문화재단 이사장, 노재전 심우문화상 심사위원, 주한스리랑카 부대사를 비롯한 양국 신도들이 함께 했다.

한편, 심우문학상은 심우당 김맹석 이사장이 설립한 심우당문화재단에서 시상하는 상이다. 심우당문화재단은 남을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007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현재 심우문화상, 장학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선업 스님 "오계 수지로 변화하길"

호국연무사서 수계법회 봉행



650여 훈련장병이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에게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다.

호국연무사(주지 진오 스님)는 12월 28일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전계사로 올해 마지막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는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청성, 청법가, 청사와 개도, 법문, 참회와 연비의식, 계첩수여와 후원금 전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했다. 계를 받은 650여 장병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선업 스님은 "수계를 받게 되면 인생의 나침반이 생겨 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 증심사 '행복한 피자파티' 개최

12월 28일 지역 아동 대상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는 자비신행회과 함께 12월 28일 '행복한 피자파티'를 개최했다.〈사진〉

'중현 스님과 함께하는 파자가게' 매월 1회 광주 복지시설과 단체의 어린이, 청소년에게 피자와 먹거리를 선물하는 행사다.

중현 스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 앞으로 좋은 나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정인사, 불교대학 3기 수료식

12월 23일 경내 교육관서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창원 정인사가 불교대학 3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창원 정인사 불교대학(학장 원행 스님)는 12월 23일 정인사 교육관 4층에서 3기 졸업식을 진행했다.〈사진〉

정인불교대학 학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대학을 다니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믿고, 배우고 실천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정법사, '비로선원' 첫 삽 뜨다

12월 21일 기공식 개최



창원 정법사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비로선원 기공식을 진행했다.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12월 21일 경내 비로선원 신축부지에서 비로선원 기공식과 비로자나 부처님, 문수·보현보살 조성불사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정법사의 비로선원은 대지 4929㎡의 부지에 건평 2240㎡규모로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명사, 혜정 스님 주지 진산식 봉행

12월 28일 경내 대웅전서



천안·아산에서 불교마이트리 봉사단을 이끄는 대현당 혜정 스님이 화성 보명사 신임 주지로 취임했다.

화성 보명사는 12월 28일 경내 대웅전에서 '대현당 혜정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사진〉 혜정 스님은 보명사를 수행·전법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원력으로 신임 주지로 나섰다.

혜정 스님은 "앞으로 보명사를 여법한 수행 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해 연화사 이상률 신도회장 취임



김해 연화사(주지 범일 스님)가 12월 21일 이상률 신도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이상률 신임 연화사 신도회장은 "스님들을 잘 모시고 신행단체들과 힘을 합쳐 연화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화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이상률 회장은 경찰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또한 가야문화진흥원 이사, 상해영상예술대 명예교수, 경찰대학 교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美 망명 러시아 스님 "전쟁 반대" 호소

러 불교공동체 지도자 발단 바자로프
모스크바 타임스 단독 인터뷰 통해
러시아 '反우크라이나' 정책 비판

박정현 객원기자

미국으로 망명한 발단 바자로프(Baldan Bazarov) 스님이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전쟁 반대를 호소했다.

발단 바자로프 스님은 러시아 시베리아 부랴티야 공화국의 튼킨스키 지구 불교공동체를 수년간 이끈 지도자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반전(反戰)에 대한 신념으로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스님은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한 입장과 전쟁에 찬성하며 러시아에 남은 다른 스님들에 대한 그의 생각 등을 진솔하게 답변했다.


미국으로 망명 한 발단 바자로프 스님의 모습.
사진출처=모스크바타임스

Q. 전쟁에 반대하는 시각을 언제부터 가졌으며 왜 고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나요?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반대해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쟁이 없어야 하고, 세계에는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많은 국민들이 반우크라이나 감정과 정책을 지지했고, 저는 이것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려대로 사람들은 반우크라이나적인 분노에 휘말려가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반전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Q. 러시아 불교 전통 승가 24대 캄보라마인 담바 아유셰예프를 비롯한 러시아 스님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그들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A. 전쟁에 찬성하는 그들의 입장은 불교 교리와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하지만 저는 담바 아유셰예프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모든 캄보라마는 제정러시아 시대(1721~1917년)부터 러시아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해왔고 그 서약 없이는 선출될 수 없었습니다. 담바 아유셰예프도 1995년에 24대 캄보라마로 선출될 때 이 서약을 했고, 이 때문에 정권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Q. 러시아 내에 전쟁에 반대하는 불교지도자들이 있을까요?

A. 가장 유명한 인물은 칼미키야 공화국(러시아 연방 자치공화국)의 전 최고 라마 텔로 툴쿠 린포체입니다. 그는 반전 입장을 이유로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남아 있는 많은 라마들도 전쟁을 지지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을 겁니다.

Q.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2022년 2월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빠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왜 러시아 불교 전통 승가에는 이러한 평화 정신이 전파되지 않나요?

A. 러시아에는 튀바, 칼미키야, 부랴티야 등 불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크게 3곳 있습니다. 칼미키야의 경우 최고 라마는 전쟁에 반대하며 나라를 떠났지만, 다른 라마들은 현재 국가의 규칙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라마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권력은 변할 수 있고, 스님들은 신도들을 위해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어떤 신도들은 "부처님은 폭력을 금지하고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는 그 행동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도 합니다.

정교회를 국교로 삼은 러시아 제국 시대부터 불교 신도들은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 살아왔고, 사찰은 폐쇄됐으며, 그 영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귀 기울일지, 무엇을 볼지 선택할 수 있고, 각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日 사찰엔 역사담은 '청주'가 있다

히가시 혼간지 '마사무네 고칸'
법요 공양물…지역 명물 등극


히가시혼간지에서 판매하는 청주 '마사무네 고칸'.
사진출처=마이도나

불교에서는 음주를 금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출·재가자를 막론한 기본 계율 중 하나다. 그러나 교토의 유서 깊은 고찰에서 당당하게 판매되는 청주가 있어 화제다. 지난해 12월 14일 일본 '마이도나 뉴스'는 교토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에서 판매 중인 '마사무네 고칸(正宗五環)'에 대해 보도했다.

히가시 혼간지 측은 "술을 말하기에 앞서 종조를 기리는 감사의 마음과 역사를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히가시 혼간지는 매년 11월 하순부터 7일간 종조 신란상인(親鸞上人)과 정토진종 본존 아미타불의 은혜를 기리고 찬탄하는 법회 '호온코(報恩講)'를 봉행한다. 신란상인의 기일에 회향하는 법회에서는 염불정진, 법문, 신행 보고 등 법요가 이어진다.

사찰에서 법요 참여자들에게 대접하는 공양물에 곁들여 내던 술이 '마사무네 고칸'이다. 히가시 혼간지의 한 신도 양조장에서 만들어 납품하던 술로 총본산만의 술이자 교토지역 명주로 자리매김했다. 기록에 따르면 에도시대 말기인 19세기 초반부터 1945년까지 항상 호온코에 참석한 대중들을 대접하던 술로 전해진다.

2차대전 종전 후 주조가 중단됐으나, 신도와 지역주민들의 간청에 따라 1992년 부활했다. 히가시 혼간지는 호온코 기간 외에도 경내 기념품점에서 마사무네 고칸을 판매하고 있다. 히가시 혼간지 재무부 측은 "호온코 기간 때가 아니어도 사찰을 방문해 정토진종의 가르침을 접하고 마사무네 고칸에 담긴 호온코의 역사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룸비니서 '인도-네팔 문화축제' 개최

불교문화 교류 증진 일환으로
문화공연, 학술 세미나 등 진행

네팔 주재 인도 대사관이 주최한 '제2회 인도-네팔 문화축제'가 지난해 12월 8일 부처님 탄생성지 룸비니에서 개최됐다. 이 축제에는 인도와 네팔 예술가들의 공연을 포함한 문화 프로그램과 두 나라가 공유하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12월 10일 인도의 '인디아 뉴스 네트워크' '뉴스 인디아' 등은 축제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제2회 인도-네팔 문화축제는 두 나라 간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됐다. 룸비니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두 나라가 공유하는 불교문화유산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데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 무용단이 선보인 카탁댄스. 사진출처=뉴스 인디아

행사에서는 크리슈나 바하두르 가르티 마가르 룸비니 도지사와 프라찬다 빅람 네우파네 관광·교통 관리부 장관, 프라산나 슈리바스타바 네팔 주재 인도 대사관 부대사가 개최사를 전했다.

크리슈나 도지사는 "룸비니는 단순한 영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도와 네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며 "이러한 마음을 연결하는 장소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문화축제가 열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발표했다.

프라산나 주네팔 인도부대사 역시 도지사의 말에 공감하고 "오늘 행사는 국가 간의 깊은 유대감을 기념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불교의 정신적인 문화가치를 창조한다"며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인도와 네팔의 예술가들이 펼치는 공연을 포함한 문화 프로그램이었다. 인도 시카 샤르마의 8인조 여성 무용단은 불교를 주제로 한 카탁댄스를 공연했고, 이에 화답하듯 네팔 측은 스와잔 라구반시 무용단이 전통 네팔 춤을 선보였다.

또한 룸비니 불교 대학에서 '인도와 네팔의 불교문화유산'이라는 제목의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두 나라의 불교학자와 스님들은 불교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세미나에서는 학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미래 룸비니에서 진행될 관광 및 문화보존 분야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네팔, '中 임명' 판첸 라마 방문 불허

난하이 불교 원탁회의 불참
종교 중립성 유지 목적 사료


기알첸 노르부. 사진출처=티베탄리뷰

네팔 카트만두와 룸비니에서 개최된 '난하이(남중국해) 불교 센젠 원탁회의'에 제11대 판첸 라마 기알첸 노르부(Gyaincain Norbu)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대중의 관심이 증폭됐다.

티베트 현지 매체 '티베탄리뷰'는 지난해 12월 14일 보도를 통해 22명 이상의 중국불교 스님이 참석한 '난하이 불교 센젠 원탁회의'에 판첸 라마 기알첸 노르부는 불참한 사실을 알렸다.

기알첸 노르부는 중국 정부에서 임명한 판첸 라마로 티베트불교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출됐다. 당초 티베트 불교계는 10대 판첸 라마 탕징 린포체의 후계자로 게두르 린포체를 선출했으나 중국 당국은 그를 구금한 바 있다.

앞서 불교계 안팎에선 판첸 라마가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였다. 판첸 라마가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에서 카트만두로 이동, 룸비니에서 열리는 특별기도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러나 네팔 외무부는 12월 12일 "판첸 라마의 네팔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대사관도 "네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판첸 라마를 행사에 참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판첸 라마의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네팔 정부는 그간 자국의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고 모든 종파를 존중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티베탄리뷰'는 "이번 사건은 네팔이 중국과 외교적 관계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초기불교와 불교윤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불교윤리학 입문
불교는 우리 시대가 대면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 전통적 주제부터 AI나 유전자 복제 등 최신 주제까지, 명료한 설명과 풍부한 예시로 풀어낸다.
데미언 키온 저, 조은수 옮김/신국판/무선/216쪽/값 15,000원

시카고대학 출판부의 유명 시리즈!
무에 대한 탐구
무無는 불교의 본질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대 비평이론에서 핵심적 개념이기도 한데, 왜 비평이론과 문화이론에서 불교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는가?
마커스 분 · 에릭 캐즈딘 · 티머시 모턴 지음, 김용규 옮김/408쪽/값 25,000원

한국불교 현대사의 산 증인, 김재영 법사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60년 동안의 신행과 전법 활동, 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온전히 담긴 이 책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국 현대불교사의 소중한 기록이다!
김재영 지음/신국판/무선/5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불멸(1)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2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빨리어 호흡관 법경 강의)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7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3	붓다 중도로 살다:깨달음은 지금 여기 삶이 되어야 한다	도법 지음	불광출판사	8	반야심경수행법 강의	남회근,황념조	마하연
4	망설일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화엄경보현행원품 강의)	도법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9	도법스님의 신심명 강의:중도연기의 눈으로 본 깨달음의 노래	도법	불광출판사
5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부처님 생애(만화불교 이야기)	김정빈/최병용	솔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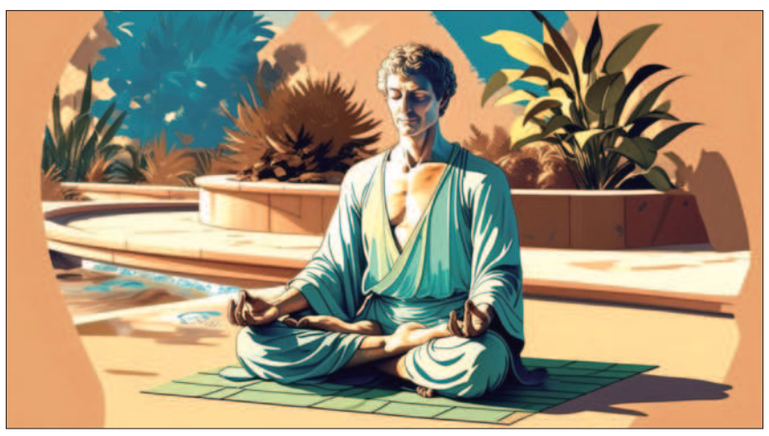
책세상

명사 서평 | 신진욱의 〈명상입문〉

마음챙김 명상, 바로 배우고 싶다면…



명상입문
신진욱 지음
불광출판사
1만8천원



해당 삽화는 생성형AI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명상입문', 마음챙김 명상 조명
저자의 평생 수행 노하우 담아
자세, 호흡 등 초심자 맞춰 설명
명상 관심 있는 사람이면 일독을

명상은 원래 깨달음을 바탕으로 궁극적 실재나 절대자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종교, 철학적 수행법이었다. 이것이 확장되고 일반화되어 종교적 색채는 옅어지면서,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고 내면적 평화와 자아를 찾는 수련법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급기야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 집중력이나 창의력 향상과 심리적 불안 치유나 신체적 건강을 찾기 위한 심신단련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 '명상'이라 부르는 말은 전통적인 선(禪)이나 참선(參禪)의 현대적 용어이다. 선은 고대 인도의 산스끄리뜨어 드야나(dhyana)의 한자 음역이다. 이것은 '의식이 한결같이 집중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의 영어식 용어가 명상(meditation)인데, '고요히 생각에 잠겨 있는 상태'나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고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상은 수행 방법에 따라 통상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으로 분류된다. 집중 명상은 특정 대상에 의식을 집중시키는 명상이다. 특정 대상에는 호흡이나 화두, 염불, 진언 등이 있다. 집중 명상은 궁극적 실재와 하나가 되는 삼매에 들어가기 위한 수행법이며, 삼매까지는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수행법이다.

반면 통찰 명상은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 주변 환경 등을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법이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면서 어느 특정 자극에만 집중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이 명상법은 초기 불교의 정념(正念) 수행에 잘 나타나 있다. 念은 Sati의 번역어인데, 지금의 今과 마음 心의 합성어가 보여주듯,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의미이다. 이 말의 영어 번역이 마음챙김(mindfulness)이고, 마음챙김 명상이다.

〈명상입문〉은 마음챙김 명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책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붓다와 명상부터 시작하여, 2장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설명하고, 그 후 마음챙김 명상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마음챙김 명상과 뇌, 마음챙김 명상과 건강, 마음챙김 명상과 감정 다루기, 생활 속에 마음챙김 명상 순서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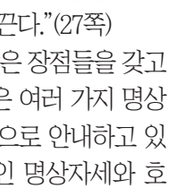
저자는 '무엇이 마음챙김인가'의 제목에서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해 늘 깨어 있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상태이다. 아무리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이더라도 삶의 매 순간과 친밀하게 접촉하려는 노력이다."(26쪽)

"마음챙김 명상의 효과는 단순히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상이다. 마음챙김을 통해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는 매 순간 상황이 확실히 나아지도록 이끈다."(27쪽)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로, 이 책은 여러 가지 명상 기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명상의 세 요소인 명상자세와 호흡, 그리고 알아차림에 관해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지도한다. 동시에 저자 자신이 일생 동안 추구하고 직접 수행해 온 명상의 다양하고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로, 이 책은 사티 명상을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티 명상을 현대 심리학에 기반해서 발전시킨 명상법이 존 카밧진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과, 세 갈의 '마음챙김 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MBET)' 등인데, 저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두 마스터한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저술했다. 명상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한구
대한민국학술원 인문사회과학부 회장, 명상 수련가

다양해진 고민도 역시 '부처님법'으로



인생수업
법륜 스님 지음
이순형 그림
정토출판 / 1만9천원

"봄날의 꽃이 화려하다면, 가을의 단풍은 신선합니다. 봄날의 꽃은 떨어지면 지저분하지만, 가을의 단풍은 떨어져도 주워 책갈피에 끼워둘 만큼 소중합니다. 한마디로, 가을은 익어가면서 오히려 아름답지요.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때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의 길로 함께 나아가고자 여기 〈인생수업〉 책을 다시 발간합니다."

법륜 스님의 〈인생수업〉 개정판이 나왔다. 초판이 나온 지 13년 만이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AI 출현 등으로 급변했다. 새로운 제도나 현상, 풍조도 생기고 그로 인해 개인의 문제는 더욱 다양해졌다. 개정판은 그 변화를 반영했다.

'사는 게 뭔가, 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수업〉은 그 대중의 질문에 대한 법륜 스님의 대답을 추린 책이다. 대중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스님에게 묻고, 스님은 대중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며 그 질문들을 부처님의 법으로 풀어주고 있다. 설법은 2600년 전의 부처님 말씀을 오늘의 시점으로 전하는 것이어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것은 '괴로움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한 법륜 스님의 통찰과 지혜가 시대상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스님의 설법은 관념적이고 현실감 없는 대답이 아닌, 실생활과 밀착된 것이어서 설득력을 더한다.

법륜 스님은 "사람은 왜 살아야합니까?"라는 질문에 "이 질문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삶이 '왜'라는 생각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사유보다 먼저 있었다"며 "살고 있으니 생각도 하는 건데 '왜 사는지'를 자꾸 물으니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한국 사람이 됐지?'라고 물으면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법륜 스님의 지혜를 담은 책은 대중의 자신감을 충전시킨다. 동시에 귀한 깨우침으로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산을 선물한다. 등을 곧게 세우고 밝은 눈으로 지금을 바라보게 한다. 책은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라며 "현재의 자기 삶에 만족하며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그냥 행복하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달라진 '결혼·가정'…새로 듣는 주례사



스님의 주례사
법륜 스님 지음
김점선 그림
정토출판 / 1만8천원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결혼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살려면 상대와 맞춰야 합니다. 또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자기의 싫은 모습을 닮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스님보다 열배, 백배 더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그리고 중년부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책,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 개정판이 출간됐다. 2010년 첫 출간됐던 책은 출간 이후 약 70만 독자가 애독한 결혼생활 필독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가정'의 의미는 많이 달라졌다. 개정판은 시대와 시차가 있는 초판의 일부 원고를 재구성하여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았다. 책은 단순히 부부갈등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 결혼 관계를 둘러싼 모든 고민에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답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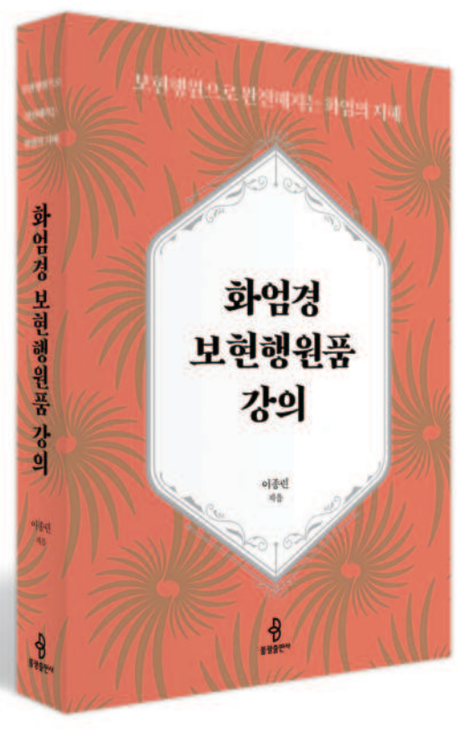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은 갈등이 생길까. 법륜 스님은 "결혼이란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것들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상대에게 덕을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할 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책은 대중이 결혼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의 사례를 통해, 행복한 결혼생활의 해법을 제시한다. 부모님의 반대로 고민하는 예비부부, 성격 차이로 다투는 신혼부부, 질병,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부 등 법륜 스님은 여러 사례를 통해 행복의 주체는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한다. 자기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꾸고,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때 결혼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결혼과 관계를 넘어 인생의 지혜를 전한다.

박재완 기자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진정한 삶의 깨달음에 이르고
모든 이들을 이익되게 하는 수행, 보현행원의 모든 것!



모든 강물이 바다에서 모이듯
일체의 수행과 공덕은
보현의 바다에서 하나가 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보현행원으로 완전해지는 화엄의 지혜

이종린 지음 | 400쪽 | 값 25,000원

이종린_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세간 속에서 해탈 이루리》,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실천 보현행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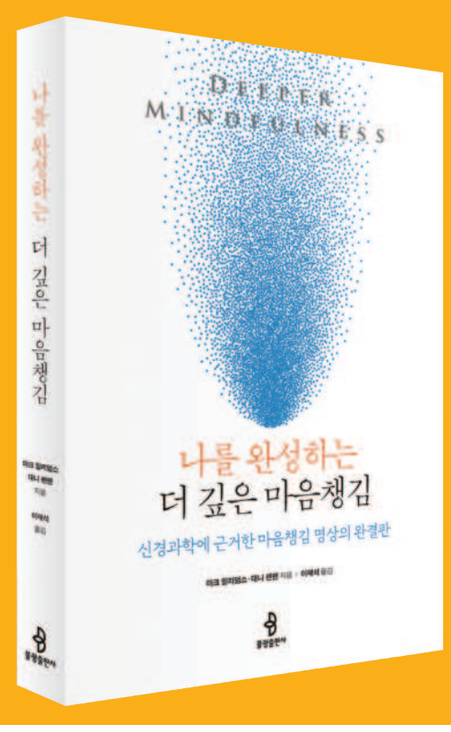
★★★★★
"목숨이 걸렸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보라." – 루비 왁스(영화배우)
"마음챙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책." – 릭 핸슨(심리학자)
★★★★★

사소한 불행조차 버거운 사람들을 위한
8주간의 새로운 감정 다루기 연습!

"괴로운 시간이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오는 듯 보여도 실제로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심리적 역동에서 비롯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심리적 과정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을 끌고 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러한
신경과학의 새로운 발견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 본문 중에서

나를 완성하는 더 깊은 마음챙김
신경과학에 근거한 마음챙김 명상의 완결판

마크 윌리엄스·대니 펜맨 지음, 이재석 옮김 | 310쪽 | 값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❷ 흰 구름 먹구름 달 감추려 해도

▶한줄 요약
'놓음 명상'은 좋고 나쁨을 따지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수용하게 돕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를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은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연 그림자 좇지말고 '방하착'하라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흰 구름 먹구름 달 감추려 애써도
지난해 그 달이 오늘 그 달 그대로.
동쪽 서쪽 수수 만 번 닳은 흔적 하나 없어
내 마음도 저 달 같이 늘 변함없으리.

흰 구름과 먹구름은 변화무쌍한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며, 지난해의 달과 오늘의 달은 본디 마음인 자성을 나타냅니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비교하는 흰 구름과 먹구름, 서로 반대적인 현실을 뜻하는 동쪽과 서쪽은 모두 시절인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은 본래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외부의 인연과 조건들에 의해 흰 구름이 생겨나고, 먹구름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가 되면 흰 구름이 나타나고, 때가 되면 먹구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사 모든 일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동쪽과 서쪽 역시 시절인연을 상징합니다. 웃음이 있다면 반드시 눈물이 뒤따르듯, 모든 일에는 인과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업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는 세상사 모든 일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감정이 결국 변화무쌍한 시절인연의 모습에 지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흰 구름과 먹구름, 동쪽과 서쪽은 나의 본디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달처럼 고요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분별심을 멈추고, 조화로운 마음으로 대처할 것을 가르칩니다. 나의 앞에 나타나는 일이 선연이든 악연이든, 그것은 결국 인연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흔들림 없이 본디 자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실천은 '놓음(방하착) 명상'입니다. 놓음 명상은 좋고 나쁨을 따지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수용하게 돕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를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은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놓음 명상'을 통해 우리는 세상사의 모든 일이 내 마음의 작용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놓음 명상을 실천하며, 변함없는 본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의연함을 되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명상]
꽃은 스스로 피고 지고
물은 스스로 흘러가는데
내 맘대로 좋네 싫네 미추(美醜)를 내뱉으니
내 진정 그네들께 한없이 송구하구나.

"물을 물로 덮을 수 없고, 불을 불로 끌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은 생각으로 덮을 수 없고, 감정은 감정으로 누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들이 맞물려 나타나는 인연(因緣)의 산물입니다. 씨앗이라는 주체(원인)가 있고, 공기와 햇볕, 토양과 습기, 때와 장소라는 조건이 더해져 하나의 형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만물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은 꽃의 인연에 따른 것이고, 물이 흐르고 증발하는 것은 물의 인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좋아하고 싫어하며 옳다 그르다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순전히 우리의 독단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 **선연 · 악연 모두 그림자 불과**
> **흔들림 없이 자성을 유지해야**
> **'놓음 명상' 내적 고요 도움돼**
> **오늘도 '놓음 명상' 실천해보길**

어떤 현상에 대해 단 하나의 원인만을 들어 잘잘못을 가리려 하는 것은 매우 우매한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힌 수많은 인연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감정을 앞세워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지는 것은 그 대상과 인연의 숭고함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는 우리의 감정은 결국 과보(果報)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를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라 합니다. 나의 감정이 불편하고 괴로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대상과 상대를 대할 때, 그것이 조건과 조건들이 서로 엉켜서 만들어진 인연의 숭고한 모습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으며, 판단과 감정을 얹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과 대화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우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 결국 나 자신이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육근(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감지되는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연의 숭고함을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드러내며 무례를 범한다면, 도리어 자신에게 불편함과 괴로움을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와 세상을 대할 때, 가만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품격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러한 품격과 품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분별심을 잠재우고, 상대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하루도 감정의 분별을 내려놓고, 세상을 인연의 숭고함으로 바라보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품성을 다듬고, 품격을 높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 비구니승가의 존재와 역사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700년의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비구니스님들의 존재와 역할을
한 권의 책으로 조명한 책!

40여 종이 넘는 고문헌과 140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국 비구니사를 철저하게 밝히고 있는 책!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비구니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책!

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 집필. 전영숙 | 450쪽 | 35,000원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당대 스캔들 메이커 '김일엽'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선사禪師 '일엽'으로!

구술. 월송스님 | 글. 조민기 | 263쪽 | 18,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북불교 미래본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직속 기구로서 포교활성화 지원 및 전북불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동본부장 **화평·평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전북불교 미래본부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45
사무총장 **응묵**, 사무국 063-224-4441 jbmirae.com

세계법화수행법음협회

법화전법도진
성 불 도 량 **상륜덕화사**

법 화 원 도 회
법 화 경 독 송 회

주 지 **묘혜일** 스님

사부대중 일동

양산 하북면 기청사
부산 사상구 법만묘화사

부산 동래구 만덕고개길 335-30
전화 051-553-3663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함안 **동 광 사**

주지 **덕 운**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함안군 산인면 내인 외동길 13
전화 055-583-0130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조 실 **설당 종우**

회 주 **대경 법달**

주		지	종	천	부 주	지	정	문
부	주	지	성	행	총	무	정	수
기		획	성	요	교	무	성	광
재		무	성	각	포	교	성	담
사		회	성	주	문	화	효	신
호		법	성	심	신도회장		이영숙	

▪ 부설기관 ▪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유치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포교당 석가사
불국사 문화회관
성림어린이집
불국사템플스테이

대 중 일 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746-1476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14호 | 12 | 전면광고

어리석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종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면
온갖 괴로움이 몸에 얽혀 재앙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천신책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60평
- 건평 : 150평 외
- 매가 : 20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면적 : 60평실평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5층건물에 4층
- 전철역 출구앞
- 보2000/70만원, 권리1000만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 규모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3억 5000만원

010-5316-5669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종합병원 월곳,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2, 각방 2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집기시설) 5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010-8599-9468
010-4746-882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법당, 산신각 20평/요사채 50평
- 창건 50년
- 가액 : 2억9000만원

010-2369-33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3억 6000만원

010-3596-0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무형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비구니 스님 구함

경남 고성
전통사찰 380평
주지로 직접 운영 하실분

010-5033-142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① 연재를 시작하며

동국대, 불교미학으로 풀어내다

1839년에는 산책 나갈 때 거북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우아해 보였다. 이것은 아케이드를 어떤 속도로 산책했던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아케이드 프로젝트〉, 발터 벤야민–



서울 동국대 전경. 사진출처=동국대 홈페이지 홍보갤러리

동국대, 거대한 '불교 아케이드'
정각원, 만해碑, 4.19동우탑 등
불교 역사 흔적들이 곳곳 산재

걷기 자체가 각광받는 오늘이다. 걷기 명상, 맨발 걷기, 걷기 순례, 만보 걷기 등등, 갖가지 걷기와 관련된 조어를 매일의 아침신문 머리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걷는 일을 명상을 위해 하든, 건강을 위해 하든, 순례를 위해 하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모두가 똑같다.

그런데 산책도 걷기의 한 갈래이지만, 걷기 산책, 산책 걷기라고 이름 하지는 않는다. 아마 산책은 걷기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수단으로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목적 없이 걷는 산책자는 목적을 가지고 걷는 자보다 우월한 특권이 있다. 바로 미적 특권이다. 목적을 가진 걸음들은 그 통과하는 거리를 해석하게 된다. '나는 약속을 위해 5분 내로 저곳을 통과해야 해' '나는 건강을 위해 몇 보를 걸어야 해' 등등. 그 해석 속에서 걸음은 융해되어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산책자는 목적이 없이 풍경을 자신의 심상 속에 소화해 내지 못하고 결정화(結晶化) 시켜간다. 마치 조개가 미처 뱉어내지 못한 뻘이 진주가 되듯이, 그리고 산책자는 이 진주 조개들을 잡는 어부가 되어 자신이 골라낸 진주들을 시장에 설명하는 이야기꾼이 된다.

불교전문매체에 불교미학산책이라는 칼럼 이름에서 '산책'에만 너무 힘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불교이든 미학이든 내가 걸어가는 산책 위에서 풍경들을 결정화하는 구조라는 걸 아셨으리라 생각된다.

미학은 산책자가 자기 안의 알레고리(allegory)로 풍경을 결정화하는 현상을 말하며, 불교는 '나'라는 산책자가 무수한 풍경 중, 어떤 순간의 인식만을 결정화할 대상으로 선택하는지의 기준을 말한다. 즉 객관적으로 펼쳐진 세상을 자의적(恣意的) 판단과 자의적 기준으로 긴장상태에 놓고, 그 긴장을 해석으로 풀어내기보다는 해소되지 않는 단단한 진주로 바라보는 것이 본 칼럼의 미학적 산책이다.

미학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학이라 하면 예술품과 관련하여 적정한 가격을 매기는 것, 혹은 작품에 얽힌 여러 갈래들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예술철학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예술철학 또한 미학의 중요한 갈래이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더 큰 정의가 필요하다.

미학은 아도르노가 '미학이론'에서 말했듯이 인식론에 가깝다. 우리는 대상물을 인식하는 가운데, 왜 어떤 특별한 것에만 미(美)를 느끼는가? 즉 미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것이 미학이다. 우리의 인식에서 아름다움을 주는 것은 예술품만이 아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숭고미도 있고, 펼쳐진 산과 바다의 자연미도 있다. 아니 오히려 아름다움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걸구하는 예술품은 지루하다. 플라톤은 영웅의 숭고미와 산천초목의 자연미를 예술로 노래한 시인들을 공화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산책자는 공화정에서 추방당해야 할까?

이 질문은 뒤로하고 나에게 다시 '미에 대한 인식'으로서 미학은 '고(苦)에 대한 인식'으로서 불교와 긴장관계를 이룬다. 물론 둘이 구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미는 특수하고, 고는 보편적이며, 인식 또한 한정된 특정 상황을 다루는 미학과 전반적 일반상황을 다루는 불교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뜸 고통만을 이야기한 붓다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매력적인 32가지 육체적 특성을 가지고,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수사가 어디에나 보인다. 왜 그는 가장 아름다운 몸가짐과 목소리로 가장 질박하고 퉁명스럽게 세상에 털 한 올만큼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을까?

나는 지금 내가 잡아낸 진주 두 알을 이야기해 보았다. 산책자는 어떤 쓸모가 있는지, 절대적 아름다움인 붓다가 왜 고통만을 이야기했는지다. 이 두 문제는 논문식으로 풀어 이야기하자면 어떻게든 나름의 해석을 얻게 되고 나는 그다음 문제를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이후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문제가 되어 다시 떠올려 보았자 시시콜콜한 질문이었다며 대수롭지도 않게 굴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점에서 해석에 반대한다. 종교에 있어서 해석은 곧 죽음이다. 이상과 구원의 이야기가 현실과 겪는 갈등과 모순이 바로 종교라는 진주다. '그대들 모두 붓다가 되리라'라는 말을 상불경보살이 매를 맞아가며 소리치지만 경전 어디에서도 왜 그대들 모두가 붓다가 되는지 해석하지 않는다. 다만 상불경의 심상에 저 문장이 결정화되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이물감에 괴로워하며 단말마를 외칠 뿐이다. '그대들 모두가 붓다가 되리라'.

올해 지면을 빌어 독자님들과 산책할 곳은 동국대 서울 교정이다. 즉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저 동국대를 걸어볼까 한다. 단순히 걸음이 닿는 곳마다, 시선이 멈추는 곳마다 결정화되어 남는 어떤 인상들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도 거북이의 속도로 가야 할 듯하다. 산책할 장소로 정한 동국대는 거대한 불교 아케이드이다. 물론 동국대는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건물마다 산책자의 길을 일방향으로만 가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지만, 이를 아케이드라 부르는 것은 학교가 지나온 120년의 세월 동안 품어온 불교의 다양한 면이 우발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사찰은 창건주의 정신에 따라 큰법당을 중심으로 영취산의 봉우리를 우뚝 세우든지, 해인의 순례길을 열든지 한다. 즉 사찰의 불교는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게 배열되어 있다. 이는 거대한 회랑이지 아케이드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동국대는 그렇지 않다. 불교를 탄압한 이조의 궁궐을 뜯어다 지은 정각원, 왜색불교를 거부한 만해의 비석, 불교의 이름으로 독재를 타도하고자 한 4·19동우탑 등등. 즉 동국대에 남아있는 불교란 어떤 학교 자체의 규칙이라기보다는 서러움, 자긍심, 구심점으로서 불교가 시대마다 다른 역할을 하며 힘겹게 지나온 세월의 돌발적 흔적에 가깝다. 인위적 편집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상흔인 것이다. 이런 불교의 수장고인 동국대 교정을 산책하며 필자와 독자 사이의 진주목걸이를 일 년 동안 꿰어보고자 한다.

서정원 박사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법화경』의 미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와 한림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말법시대, 중생 구제에 천착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② 지장십륜경과 삼계교

오늘은 〈지장십륜경〉과 '삼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서 인도에서 발생한 '지장' 내지 '지천' 사상이 대승불교에서 그 사상이 체계화 됐고, 이를 담아낸 경전이 〈지장십륜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인도에서 유래된 지장사상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발전했으며 또한 그 실천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장신앙을 그 경전과 함께 활발하게 유포시킨 종파는, 중국불교의 13개 여러 종파 중에서 '삼계교(三階教)' 라는 종파입니다. 삼계교의 종조는 신행(信行, 540~594)으로서 유독 실천성이 강한 불교종파의 하나였습니다.

먼저 삼계교의 '삼계(三階)'란 시(時)·처(處)·인(人)을 말하며, 그 시대상황(時)을 부처가 없는 말법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거주하고 있는 처소(處) 또한 말법의 탁한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것이며, 사람(人)들은 그 말법시대의 탁한 사람들로서, 불법을 모르는 극악무도한 사람들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하는가에 삼계교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듯 삼계교는 철두철미한 실천적 행동으로 민중을 향해 다가섰던 종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불시대에서의 신앙도 오로지 '지장보살'을 칭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시대인식을 올바로 세우려 노력하고 '지장신앙' 정진에 힘쓴 삼계교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에 걸쳐 400여 년간 전법을 금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의 모든 전적(典籍)에서도 한두 줄 밖에 거론되고 있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승·소승 불교의 전파사상 전례가 없던 것입니다. 당나라 시기 삼계교의 실천행과 탄압 과정은 뒤에서 차차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삼계교'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 제호에게 하는 것도 삼계교의 사상을 전한 소의(所依)경전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이기 때문입니다.

〈지장십륜경〉은 신라의 신방(神昉) 법사가 찬(撰)한 것이라는 주장이 근래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의 서문에 적힌 '방(昉)'이라는 한자로 인해서 이뤄집니다. 이는 삼계교 연구의 대가 야부키 케이키(矢吹慶輝)의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삼계교의 적극적인 전법을 펼쳤던 신방(神昉)은 정토교도들의 맞수가 돼 상당한 비방을 이뤄진 것이 정토교 사적 등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장신앙과 그 사상이 저절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계교, 中불교 종파 중 하나
말법시대 중생 구제행 실천
수~당 거쳐 전법 금지 탄압

한 말씀 덧붙이자면, 신라 시대 말기를 거쳐 고려 시대 전반에 유행한 지장삼부경의 참회경전 즉, 〈점찰선악업보경〉의 불교참회사상의 혁혁한 실존성지인 금산사·법주사·동화사가 선종사찰이 아니라 지장경의 전법도량이었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리자면, 삼계교에 정통해서 삼계사(三階師)라고 까지 불리는 신방 법사는 〈지장십륜경〉의 서문을 짓고 있습니다. 〈지장십륜경〉서(序)는, 일본 궁내성본에는 제1권의 앞에 기록하며, 고려대장경본에는 제10권 후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장십륜경〉의 내용은 말법불교에 있어서 지장신앙이 최상승이며, 그리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對根應病) 법을 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합니다. 보법(普法)의 옹호로 모든 법을 다 포섭하며, 파계한 승려들까지 옹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연력강화
- 근육통와환,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스님 건강, 편백나무로 지킨다

히노끼(편백)나무의 효능

이노 끼(편백)나무 열매가 있. 줄기, 뿌리중에서도 피톤치드 향이 가장 많고
열매를 구애 잘 건조시킨 후 집안 곳곳에 방양제모 사용 가능하며 아로마 테라피로 스트레스 완화.
피부질환 개선, 달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히노끼(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당의 욕조로 사용하면 좋고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색상, 침대, 쌀통, 발판, 장난감,
그리고 메계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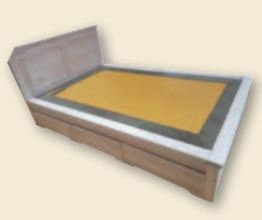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일반 나무보다 5.5배 가량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할 정도이며,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로서 항균, 탈취, 공기정화의 효능이 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편백 숯침대
100% 참숯





편백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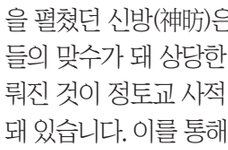
편백서랍장



편백찜기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❶ 소한 – 정동길을 걷다



▶한줄 요약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던가. 여전히 춥고 매서운 계절은 무섭지만, 그 아래 꿈틀대는 생명의 힘은 더욱 강하다.

매서운 추위에도 생명 움트듯…정동엔 '生'이 있다

높디높은 담벼락이 강처럼 흐른다. 굽이굽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어느새 처음과 끝을 하나로 잇는 이 오묘한 벽의 세계. 이 땅 현대사의 격랑이 여전히 살아 물결치는 이곳은 서울. 그리고 그 안에 오래된 심장과 같은 '정동(貞洞)'이 있다.

아직은 차가운 계절. 하지만 뜨거운 심장 박동 울리는 이 벽의 세계에서 다시 길로 나서는 때, 이 매서운 계절도 분명 저물고 말 것이다. 분명 그러할 테다.



나라 잃은 왕의 애환이, 그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있는 정동길. 소한의 서늘한 계절 속에서도 이곳을 지킨 질긴 생명의 힘을 느낀다.

소한(小寒)의 시작

절기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를 24번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황도에서 춘분점을 기점으로 15°씩 한번, 두 번 이동해 나가면 어느새 한 해를 채우는 스물네 번의 절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흔히 달력에 쓰인 하루만 절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절기는 대략 보름을 기준을 바뀌어 가는 셈이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 농사짓기 좋은 비가 내리는 곡우….

자연이 개발의 대상이 아닌,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일 때의 셈법은 더 다정하고 아름답다. 숨 가쁘게 살아내는 열두 번의 한 달 대신, 스물네 번의 계절을 살고 싶은 이유다.

1월에 맞는 첫 번째 계절은 소한(小寒).

절기 순으로는 끝에서 두 번 째지만, 양력 기준의 새해에 들어선 가장 처음 맞이하는 계절. 하지만 공교롭게도 소한은 일 년 중 가장 춥고 엄혹한 시간이 될 터다.

3천 년 전, 중국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절기는 이 땅의 계절과 딱 그 거리만큼의 다름이 있다. '작은 추위'라는 뜻의 소한 뒤로 '큰 추위'를 말하는 대한이 오지만,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한 무렵 1년 중 가장 혹한의 시기를 맞이한다.

어디 절기뿐일까. 이 땅의 새 시절은 늘 그렇게 절절한 통증과 함께 찾아오곤 했다.

정동 길에 서다

왜인지 광화문을 필두로 한 종로, 소공동, 명동 등의 중구 일대 지역은 찬 바람이 이는 계절에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 같다.

종로 사거리 회색 빌딩 사이를 파고들던 바람, 옷깃을 잔뜩 세운 채 이제는 사라진 피맛길의 목로주점으로 삼삼오오 향하던 사람들, 어깨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툭툭 털고 들어서던 노포의 후끈한 내음. 눈 내리는 광화문을 걷다 보면 어느새 펼쳐지던 덕수궁 돌담의 하얀 얼굴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신도시는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이 거리의 겨울 서정. 어쩌면 그것은 이 일대의 틈새마다 냉기 어린 우리의 지난 역사가 배어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발걸음마다 이 땅 근현대사의 아픔을 딛고 서는 길. 나라를 잃은 왕의 애환이, 그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백성의 피와 눈물로 지도를 만든 정동의 거리. 그곳에는 숨 가쁘게 휘몰아치던 이 땅 19세기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20세기의 얼굴이 오롯이 남아있다. 소한 무렵 정동 거리로 나선 것은 그 서늘한 계절 속, 이곳을 지킨 질긴 생명의 힘을 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주 보는 사람들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을 거슬러 걷다 보면 어느새 왕의 어진을 모시던 선원전(현재 공사 중), 그리고 정동 1928 아트센터((구)구세군 기념관)의 사잇길에 다다른다. 그 길에 들어선 지 몇 걸음 되지 않아 오른편에 보이는 철제 출입문. 그 너머에 고종과 왕세자가 경복궁에서 구 러시아 공사관으로 목숨을 걸고 피신을 했던 '고종의 길'이 있다.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목숨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순종과 함께 궁녀들이 쓰던 가마를 타고 어느 깊은 새벽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다. 이미 친위대 대대장 이진호의 배신으로 한번 실패했던 계획이었지만, 두 번째 시도에 이르러 성공한 것이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뭇 생명을 위해 켜진 등불이 항상 반짝인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중명전. 지금은 그날의 현장이 재현돼 있다.

고종의 망명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몸을 피했던 그 1년간 고종은 독립문 건설과 독립신문 창간을 지원하고 각종 도시개조 사업을 실현했다. 또 관립 외국어학교를 세워 키워낸 인재들을 영입, 서구 세계에 대한제국의 존재와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알리는 데 애쓴 것이다.

그 밤, 폭 3m, 길이 120m 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길을 달리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힘없는 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동반한 일본의 강압 속에서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다. 같은 정동에 위치한 중명전의 한 회의실, 왕의 빈 자리를 '을사오적'이 대신한 날이었다.

고종의 길에서 가까운 중명전에는 지금도 그 날의 현장을 재현한 자리가, 그리고 바로 반대편 방에는 마지막까지 분투했던 고종과 헤이그 특사의 흔적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

오른발에 눈물, 왼발에 희망

고종의 길과 중명전이 구한말의 애환이 서린 현장이라면, 정동의 중심부에 자리한 정동교회 곁으로는 수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자리해 있다. 비록 국권을 잃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포기하지 않았던 증거들이다.

선교사 H. G.아펜젤러가 두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한국 최초의 근대 사학인 배재학당 기념관.

하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기념관 옆 배재 어린이 공원에 자리한 '거사 전야'라는 작품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의병단을 조직한 독립운동가 윤희순 의병장, 그 곁의 배화여고 학생이 작은 등불에 의지해 함께 독립선언서를 찍어내는 모습. 윤희순이 직접 지은 '안사람 의병가'를 새긴 낡고 흐려진 동판의 모습이 안타까운데, 그래서인지 더욱 비장과 애잔함이 감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정동극장 방향으로 걷다 보면, 길 건너 거대한 병원 건물 사이에 가리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이자,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경교장'을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금광산업으로 부를 축적한 친일파 최창학의 저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공간. 한국 전쟁 당시에는 미군 의료진들의 거처, 이후 강북삼성병원의 건물로 쓰였던 부침 많은 이곳. 난방할 여력이 되지 못해 냉골과 다름없던 경교장에서, 때로 친일의 부끄러움조차 잊은 최창학 가족들에게 눈치를 보아가면서도 김구 선생은 '문화로 융성한 나라'를 꿈꾸었다.

하루를 백 년처럼 살았던 이들의 생을 빌려낸 오늘. 지금도 붉게 남은 혈흔의 옷자락,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김구 선생의 웃는 모습이 얼얼하다.

벽 너머로

지금이라도 날아갈 듯한 소녀상과 '광화문연가'를 지은 이영훈 작곡가의 기념비를 지나 똑바로 걸어나가면, 비로소 정동을 상징하는 덕수궁 돌담길로 들어선다.

지난 역사의 파란과 함께 이리저리 흐르다 정동을 벗어나는 시간. 돌담길 곁 성공회 서울성당의 뒤편에 자리한 사제관 앞에는 6·10민주항쟁의 진원지임을 알리는 기념비가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거대한 지평이 시작된 이곳. 정동의 길은 끝까지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환영처럼 울려 퍼지던 지난날의 함성이 실제임을 깨닫는 계절. 그 소리를, 빛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수송동 조계사 앞까지 다다른다. 아스라한 저 등불이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뭇 생명을 위해 켜진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던가. 여전히 춥고 매서운 계절은 무섭지만, 그 아래 꿈틀대는 생명의 힘은 더욱 강한 것. 벽을 넘어 하늘로, 새로운 세계로 피어오르는 저 수만의 빛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대행 스님

찰나의 생활을 그냥 여여하게 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그런 걸 아십니까? 아니, 나뿐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곤궁에 빠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차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순간의 놀란 그 마음을 조금 진정을 하고 보면은 눈에서 뼈저린 눈물이 흐르죠. 어떻습니까? 딴 거는 안 그럴까요? 그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부 하러 다니는 것을 그냥 괜히 하러 다니는 걸로 생각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고 예전에도 얘기했죠. 그런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궁금하죠. 궁금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큰 비행기도 공중에서 감쪽같이 없어지고, 큰 바다에서도 감쪽같이 없어지는 이유가 어딨을까요? 그것을 작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건 자석이 아니라 자력에 끌려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 사람까지도 벗어나서 이 세상을 전체 손아귀에 쥐고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계신 데가 없고, 손이 안 가는 데가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이 그렇게, 모습 아닌 그 속에 바로 불종(佛種) 그 자체로서, 바로 불종이라는 이름조차 없는 불종으로 그냥 어디든지, 어디든지 있죠. 그래서 이 공부는 어마어마한 공부면서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렇겠지. 그냥, 어,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단전을 한다 뭐, 호흡을 한다 하는 문제도 만약에 입으로 먹고 똥으로 안 누면 막히죠. 그와 같이 단전호흡을 해서 바깥으로 나쁜 그 기를 모아서 빼지 않는다면 그거는 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되고 마는 그 몸뚱이조차도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생각도 떨어지는데, 뭘 어떡할까요? 이걸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우린 영원하기 위해서, 또 영원하게 내가 살 양으로 내 욕심을 채워서 이 공부 하는 게 아닙니다. 천차만별로 돼 있는 어떠한 목신이든 지신이든, 흙에서 나는 거든 나무에서 나는 거든, 공중에서 나는 거든 또는 태에서 나는 거든 알에서 나는 거든, 습한 데서 나는 거든 화해서 나는 거든 이런 것 전체를 다 둘 아니게 한 낚시에 탁 걸어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낚시도 낚시 없는 낚시지 낚시라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또 손 아닌 손이라고 했죠. 생각 없는 그 한생각이 전체를 담아서 건질 수 있는, 자동적으로 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현실로 연구하는 것도 어떠한 연구를 하든지 그건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연구를 너무 딴 데보다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 탁 쳐 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미국이 소련보다 높아서도 안 되고 또 소련이 미국보다 높아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깐요.

그 연구들을 하는 마음도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써, 머리로써 연구하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거를 정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신으로 돌아서 가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들어가는 거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계합이 돼서 돌아가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재 보고 듣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 감각으로서 머리를 쓰는 현재의식 자체가 결정짓는 마음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자라는 50%가 돼서 모자라는 물질세계 50%에서 그냥 사는 여러분이 돼 버리고 말죠. 그 생각은 바로 한데 계합된 정신이라야만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계합된 그런 연구인이 있다면 만약에 글을 연구할 때에 그 모든 자료를 같이 넣어서, 예를 들자면 탐지기는 탐지기대로 어떠한 분별만 하게끔 하고, 또 어떤 거를 '어디 있나' 그것만 봤는데 지금은 '어떠한 걸로 썼는가, 어떠한 걸로 만들었는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이것까지도 다 컴퓨터로 나오게끔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더 가면 그것보다도 더 나은 최대의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죠. 인간이 다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은 최대의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뜻을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팔만대장경에 모두 해 놓은 걸 요 사는 데다 꼬작꼬작 붙여 놓으니 이걸 어쩝니까? 저 우주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갖다 넣고 그냥 슬슬 굴리게끔 해 놓질 않고, 슬슬 굴리게 해 놓은 그 경서를 조그마한 데다가 딱 붙여서, 우리 사는 데다가 붙여서 항상 빌게 만들어 놨어요, 항상. 네?

항상 빌면서, 깡통을 들고서 그 깡통에 달라고 빌어요. '반찬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아휴, 밥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아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먹질 못합니다, 관세음보살!' 또 '취직을 못 했는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만날 얻으러만 다니는 겁니다. 얻으러 다니게 만들어 놔요! 그래,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가 내 밥 먹는 거지, 누가 나를 먹여 주고 누가 행복을 갖다 주고, 누가 하나요? 그거를 뒤집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참내, 기가 막혀서! '아버지! 저 사람은 몰라서 저렇게 그러는 거니 용서를 해 주옵소서.' 하고 했잖습니까? 예? 그게 무슨 소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소립니다. '에이구,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무슨 죄가 있겠나.'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얘들아, 모두 나를 믿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자' 소리를 안 넣었기 때문에 '모두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 이 예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는 줄 알고 온통 그 이름을 가지고 상표를 붙여 놓고는 전부 비는 거야, 또. 아니, 이름들은 모두 상표입니다, 이게. 물건의 상표예요.

그런데 그 상표에 묶여 가지고는 그냥 옴폐부득 못 하고 꽁꽁 묶여서, 창살 없는 감옥이지, 그게 결국은. 그래 가지고 빠지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야. 아니, '물이 깊고 산이 높고 불덩어리가 온통 죄 탄다' 하고 그냥 마귀들이 북적거린다 하더라도 체가 없는 내가 마음이 넓으면, 그냥 다 주워 모아서 여기다가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넣어서 그 아팠던 의식과 모자랐던 의식이

☞ 16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체를 다 자기 주인공 한군데다 묶어 놓고 맡기고 살라

☞ 15면에서 계속

다 없어지고, 그 충만한 의식을 가지고선 이 세상에 모든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얼마나 한생각을 내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기복으로만 자꾸 돌아가서, 이 기복이라는 것도 좋은 말로 들리겠지만 그 말보다도요, 행이 모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이란 말입니다. 또 얻어먹게도 하고요. 나중에는 얻어먹다 얻어먹다 강도질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몸뚱이가 없어지고 의식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끼리끼리 모이죠.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놓고, 금은 금대로 놓고. 아니, 사람들도 전부, 공업을 하는 사람은 공업,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 이렇게 끼리끼리들, 뭐, 누가 오너라 가거라 할 거 없이 공부한 과목대로 그냥 풀려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던 그 마음이 죽어도 역시 항상 해코지를 해. 그저 살아 있는 거기 가서 '왜 내가 너를 이렇게 때리는데도 말도 안 하고,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도 왜 아는 척도 안 하니?'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상대방이 모르는 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줄 모르니까. 그렇게 몰라. 그러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솔직한 얘기지만, 내가 여러분한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합니다. 너는 과거에 어땠고 과거의 부모네가 어땠고 뭐, 자식이 어쨌고 뭐, 이렇게…. 그거 다 얘기한다면 복잡하고, 공부할 수도 없고, 그걸 밀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쎄, 어떡해요.

어떤 땐 정 이게 이러면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러 다만 얼마를 봉투에 해 가지고 올 때 말없이 거기다가 메모를 해 놓습니다. 왜냐? 전자에 살던 조상분들이 너무나 몰라서, 자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 의식으로 살았던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는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모르느냐, 나를 못해 주느냐?" 이러고 전자부터 나오던 게 자꾸자꾸 얽매여서 돌아가, 그냥. 얽히고설킨 게 다 붙어 돌아가니까 그거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죠. 이게 몸뚱이 갈 때 혼자 홀가분하게 가고, 마음도 홀가분해야 걸음도 잘 떼고 좋은데 한 짐 잔뜩, 만약에 요 귀까지 요렇게 어깨에 올려놓고 있으면 팔도 움죽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느 사장이 골수염으로 모두 죽는다고 그러고 고생을 할 때, 내가 그랬거든요. "지금 부산을 차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차 꼭대기에 귀까지 이렇게 그냥 물건을 실어 놨으니까 이 팔도 움죽거릴 수 없고 귀도 잘 들리지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부산을 가십니까? 물건 좀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랬어. 그랬는데 못 알아들어. 백지야. 요 어깨에 있는 것만 내려놔도 이게 갈 텐데 못 가는 거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이러면서 그냥 홱 가 버리는 거야.

아, 못 알아들었더라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러면 그 뜻을 알 텐데 그냥 가는 거지. 허허허. 그러곤 가길래 속으로 빙긋이 웃으면서 '아,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어떡할 수 없다 그러더니 할 수 없구나. 저이는 돈만 보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겁게 짊어졌다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냥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곤 말았죠. 그랬더니 그 식구들도 다 그렇게 됐고, 그 재산도 회사도 그만 그렇게 됐고…,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모두가 살아나가는 데 급급해서 그냥 애를 쓰고, 이름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이론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지식으로 사는 거 이런 거, 남의 거를 갖다가 빼서 어떡하든지 내 걸로 만들어서 그저 좋게 얘기해 주면 될 줄 알고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엊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정락 스님더러. "이런 분 이런 분이 선객인데, 선객으로 가시는 큰스님네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행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 동감입니다. 스님 생각이 꼭 옳습니다." 이러시더군요. 내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그 진실한 도리를 앎으로써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뜻을 지니고, 진실한 그 뜻을 지녔기 때문에 자기가 익게 되고, 익게 되면 고개가 숙어지고, 고개가 숙어지면 언제나 나 아님이 없고 전부 둘이 아니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도리를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모두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집을 해서 그저 비는 걸로만 만들지 마세요. 법성게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 종성도 그렇게 좋은 말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그냥 아주 비는 걸로만 해 놓고, 그나마 그냥 원문으로 둔 것은 또 괜찮고요. 하여튼 바깥으로 끄달리지만 않으신다면 빌지 않을 겁니다. 또 안으로도 빌지 않을 겁니다.

왜? 안으로 둘로 본다면 기도를 해야 하지만, 둘로 보지 않는다면 '관(觀)하라' 이런 소립니다. '내 주인공만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과 내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 소립니다. 마음과 이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것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런다면 그 무엇이 있었던가? 그냥 주먹으로 이걸 하나를 집어서 한 번 친다면 쩡 울리는 그 뜻, 두 손으로 그냥 두 개를 집어서 팍 친다면 번쩍 불이 일어나는 찰나, 이겁니다, 모두가. 이 공부가 참 재미있고, 생활 속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찰나의 생활을 그냥 여여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빌어먹으려고만 하고 빌고 있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글쎄.

영원토록 우리는 그냥 쉴 사이 없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금방 그렇게 났다가 금방 이렇게 늙든지 젊든지 죽는다 그런다면 의식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그 의식을 자기가 알면 그냥 곧바로 갈 것이고, 죽기 전에 벌써 대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요. 그러고는 집을 다 마련해 놓고 가고, 또 그 도리를 모른다면 집도 안 해 놓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또 만들고 또 그것도 모른다면 집을 만들려고 거기 갈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죠, 아무 데나. 돼지 소굴이든 뭔 소굴이든 그저 돼지우리든, 소가 있는 데든 새가 있는 데든 뱀이 있는 데든 그걸 모르니까. 까치 둥우리인 줄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 그게 한 번 잘못에 그 소굴로 들어가 그 모습을 가지면, 그 모습이 살고 있는 거기의 의식이 배어 가지고는 사람으로 돌아오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요, 어마어마한 공부요.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왔다 그냥 슬며시 스러져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요거 한 철을 잘 공부한다면 세세생생에 우리는 끄달리지 않을 거고 얽매이지 않을 거고, 나와 둘이 아닐 거고 둘이 아닌 까닭에 나툴 거고, 나투는 까닭에 건질 거고, 건지는 까닭에 부처와 부처가 둘이 아닐 거고….

아무리 부처가 수만 명이 됐다 할지라도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니게 하나가 돼 버려. 부처님의 제자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마음과 그 깨달은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이것도 부처 이것도 부처, 모습은 다르지만 다 부처라. 하나야. 부처는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도 없느니라 이거야. 하나도 없느니라. 왜? 제자가 만 명인데 아, 글쎄, 제자가 자기와 같이 다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 깨닫지 못했든 깨달았든, 하여튼 그 만 명이 다 자기 마음하고 똑같이 그냥 합쳐져서 계합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나다 할 수도 없고, 부처가 많다 할 수도 없고, 부처가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엉거주춤 말하기를 "무(無)!" 했단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고 그 하나마저도 없으니 하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만 개가 하나로 돌아가고 또 만 개가 됐다가, 만 개가 하나로 돌아가고 또 만 개가 제가끔 됐다가, 그 만 개가 또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십억 만 개도 될 수 있으니 어쩌느냐 이거죠. 그러니 부처라는 이름도 없느니라. 그게 바로 부처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좌석에서 깨닫는다 하더라도 다 부처님 마음 안에서 그냥 하나의 부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은 지금 시급한 것이, 그전에 내가 광명선원에서 설법할 때 이랬죠. 그때 뭐, 요것만 생각나요. "구이팔이…."라고 그랬던가? 그러면서 무슨 시를 읊은 게 있어요. 또 예전에 그, 십 년 전인지 뭐, 아마 십 년 전일 거예요. 그때 또 왜 "팔팔 공치기는…." 이런 시 읊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가당치도 않은 말이니까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해서 던져 놓는 거죠. 그대로 생각해서 놓으면 그대로 실행이 나와요. 이것이 과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자동 과학이야. 자동심 과학.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 잘 치렀죠? "십중팔구 좋을시고." 했으니 말이에요. 어때요, 멋지죠? 우리가 삿갓 쓰고 주장자 짚고 신발을 거꾸로 머리에다 쓰고, 거꾸로 다닐 줄 안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을시고'예요.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무엇을 더 바라겠나' 이런 셈이죠.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따로 이렇게 모습은 있지만 따로 없듯이, 부처 중생이 따로 없듯이 그 뜻을 앞으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 배우는 것만 아니라 증득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자기 주인공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 가정을 해결할 수 있다.' 일체를 다 자기 주인공 한군데다 묶어 놓고,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세 가지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인과에 의한 모든 걸 녹이는 법이요. 둘째는 습을 떼는 법이요. 셋째는 나를 발견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가정도 편안하고 내 맘도 편안하고, 전부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 밥 내가 먹는 거지
누가 나를 먹여 주고, 누가 행복을 갖다 주고
누가 하나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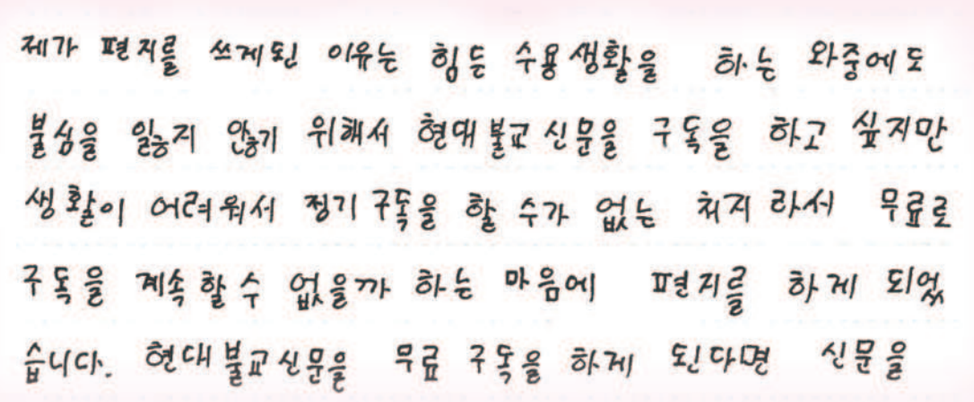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① '이뭣고' 의문 던지기

진심 담긴 의문…화두타파 첫걸음

나이 40대를 진입할 무렵, 나는 심신이 매우 지쳐있었다. 과중한 업무에 밤낮없는 육아, 안팎으로 콱 막힌 삶. 어느 순간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다. 매일 가까스로 버틴다는 위태로운 시간이었다. 아픈 몸에 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살고 싶지 않다는 충동이 일었다. 온갖 진료과목을 다 도는 병원 순례를 하였으나, 딱히 이상은 없다는 말에 '만신창이인데, 그럴 리가' 했다. 결국, 정신과 쪽으로 접수해 보라는 의사의 말에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각성이 왔고, 일단 모든 걸 멈추었다.

'진심'으로 화두 들기

분명 부처님께서 '자유와 해탈'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있는 걸까. '업'이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존재에 대한 의문과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병들어 죽건, 늙어서 죽건 어차피 죽을 몸인데 '수행하다가 죽자'라는 생각에 난데없이 벽을 보고 앉았다. 하지만 어떻게 좌선해야 할지 몰랐다. 운 좋게도 화두 지도에 능통한 귀한 인연이 찾아와, '보는 것은 무엇인가, 주인공을 찾아라'라는 화두를 받았다. 평생 '밖으로만 향하던' 마음이 생전 처음으로 '안으로 향하는' 순간이다. 눈이 보는가, 아니 눈알이 보는가? 인식이 보는가, 아니 마음이 보는가? 보고 있는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화두 숙제를 받은 기간은 2주. 그 기간 뒤에 장시간 좌선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열심히 답을 찾아 법사님께 점검받는 족족 그것이 답이 아니라 하신다. 그러자 가슴의 특정 부위가 갑갑해 왔다. 뭐가 뭉친 것처럼 갑갑해서 어쩔 줄 모른다. 어디가 아픈가? 병원을 가야되나? 허리도 아프고 비염도 심한데 심장 부위의 갑갑함까지. 장시간 좌선할 수 있을지 겁을 먹고 호소하니, 법사님은 빙그레 웃음 짓는다. "됐네 됐어! 잘하고 있어!" 뭐가 됐다는 거지? 가슴이 갑갑해 죽겠는데, 뭘 잘하고 있다는 거지?

'의단(疑團)' 만들기

화두 들기의 첫걸음은 의단 만들기이다. 의단이란 화두(존재에 대한 의문)가 풀리지 않아 심장 또는 가슴 부위에 에너지가 뭉쳐 덩어리지는 현상을 말한다. 의단을 다른 말로 의심(疑心) 또는 의정(疑情)이라고도 한다. '이 뭣고'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간절한 의문에 답을 찾지 못해, 마음이 생겨나는 심장 부위에 의문 덩어리가 생기고 극심한 갑갑함을 느끼게 된다. 이 느낌이 덩어리진 것을 '율극봉 또는 금강권'이라고도 임제종 양기파에서는 말한다. 율극봉은 가시 밤송이를 말하고 금강권은 쇠뭉치를 말한다. 밤송이 같은 것이 목구멍이나 명치에 걸려,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갑갑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앞뒤가 막힌 은산철벽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뭣고' 화두를 들어, 가슴에 의단을 형성한다.

화두 향한 간절한 의심 '의단'
삼매 향한 초입, 점점 키워야

가슴 부위에 '의단 덩어리(율극봉)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는 '화두를 타파하냐 못하냐'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 이유는 의단이 만들어진 지점이 '집중점'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만들어졌다면 일단 50%는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머지는 이 집중점을 놓지 않고 지속으로 집중하는 것만 남았다. 이 '집중점의 확보'가 삼매로 가는 초입인 셈이다.

'화두' 어떻게 드는가

똑같이 화두를 받더라도 의단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이 뭣고'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진실로 성심으로' 들었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게 된다. 건성으로 아무리 오래 화두를 들어봤자, 그 안에 진정한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효과를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인생의 코너에 몰려 도대체 삶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간절함에 압박받는 사람일 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화두를 들면, 밖으로만 향하던 마음이, 드디어 안으로(근원인 '나'로) 향하게 된다. 여기서 화두를 들 때 '진정한 의문'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진심으로 궁금해하면 머리가 아니라 심장 부위에서 에너지가 발동하게 되고 의단이 형성된다. 우리가 정말로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화가 날 때, 가슴을 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뭣고' 화두를 왜 받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의 시작'이다(①스스로에 대한 자각의 불을 밝힌다) → '진실로 이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품는다(②의문을 진실되게 품는다) → 심장 또는 가슴 부위에 에너지 덩어리(갑갑한 지점)가 형성된다(③의단, 집중점의 확보).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① 약사가 알려주는 약국 활용법

올바른 건강정보, 동네 약국서 만나세요

바야흐로 정보 홍수의 시대이다. TV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건강정보가 넘쳐나고, 유튜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소문처럼 퍼져나간다. 대중들은 수많은 정보 중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기 일쑤다. 건강해지기 위한 수고스러운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흩어지고 난 뒷자리엔 섭취 의욕이 사라져 버린 채 잊혀져 유효기간을 넘겨버린 영양제 잔해와 얇아진 지갑만이 나를 처량하게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광고와 자본주의의 속박에서 한걸음 떨어져 솔직 담백하게 전달받는 방법은 없을까? 의외로 정답은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집을 나서서 길모퉁이를 돌아 조금만 걸어 나오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약국이다.

나는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다. 약국에는 수많은 회사에서 출시된 제품들이 각자의 쓰임새를 기다리며 약장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약국이라고? 처방전에 적힌 약을 그대로 포장하고 하루 세 번 식후에 먹으라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곳? 영양제를 팔려고 호시탐탐 쓸데없는 말을 거는 거기가 정말 올바른 정보를 주는 장소란 말이야?'

오해를 풀기 위해 처방전을 받고, 입력하고, 약을 지어서, 하루 세 번 식후에 먹으라고 하는 반복적이고 간단해 보이는 작업 속에서 약사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전을 받고 나면 첫 번째로 처방전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 처방전이 감기에 관한 것인지 배탈에 관한 것인지, 혈압이나 당뇨에 관한 것인지 파악을 한다는 뜻이다.

그 후 처방된 약들의 용량, 횟수, 투약일수가 처방전의 의도에 맞게 처방됐는지 확인한다. 별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처방전을 입력하고 약을 짓지만, 의도와 어울리지 않는 약이 갑작스럽게 들어가 있거나, 용량과 투약 횟수가 환자 상태에 맞지 않게 처방이 되어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 처방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잘못된 처방을 수정하거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비로소 처방전은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



약사, 6년간 약을 공부한 '전문가'
약·건강제품 데이터 모인 '약국'

약을 조제 할 때도 알약의 경우 포장을 개봉해도 되는 약인지, 다른 약과 함께 포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약들끼리 함께 먹었을 때 약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가루약일 때는 갈아도 되는 약인지, 갈았을 때 변색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약과 함께 분쇄하여도 되는 약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조제하며, 시럽의 경우에는 정해진 용량만 덜어줄 때도 있지만, 가루의 비율을 계산하여 저울로 칭량하고 물을 부어 즉시 조제하는 건조 시럽을 만들 때도 있다. 복약 지도를 할 때는 약을 받는 사람의 나이와 체중, 그리고 처방받은 약의 종류를 모두 고려하여 복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주지시킨다.

그런데도 약국에 가면 "식후 30분 드세요"라는 말밖에 못 들었다고? 오히려 좋다. 별 이야기가 없었다면 당신이 처방받은 약은 이미 문제없이 지어졌고, 당신이 먹는 이 약도 큰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없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보였던 약국에서 약을 받는 행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지식과 고민이 필요한 과정들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조제실 안에서 일어나며, 약사들에게는 매일 하는 일이므로 신속하고 능숙하게 이루어지는 업무들이라 그냥 보기에는 약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곳보다 약국에서 건강과 약, 혹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 약국이란 곳은 약에 대해 적어도 6년 이상 공부한 약사가, 국가 고시를 통과하고,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제품을 접하며 각 제품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제품들의 효능 효과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가 있는 장소이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성인병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자주 찾는 단골 약국이 있을 것이다. 그곳은 약을 업으로 삼아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많은 제품의 임상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약국이 바로 당신 지척에 있는데, 마케팅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제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건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집 앞 약국으로 달려가 보자. 당신이 약국에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5 출 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법 일기

포교당은 실전이자 공부
교류, 연대로 견고히 했다

이미 포교 일선에 선 이상 갖춰져 있든 그렇지 않든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스님들이 그렇듯 깨달아서 포교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과정이 공부요, 동시에 실전인 것이다. 마치 염불과 같다. 매일 매일 무대에 오른 듯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은 내일의 연습인 것처럼 포교당은 하루하루가 무대이다. 하지만 관객이 없을 때가 더 많은 무대.

그렇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산 중 사찰에서 대중과 같이 살 때는 몰랐던 척박한 환경부터 신도들을 대할 때 체감하게 되는 얕은 공부와 수행이 태산처럼 버거웠다. 그때 인연이 된 게 유나방송 정목 스님께서 월암 스님과 박문호 박사를 모시고 진행했던 불이선회와 과학공부였다.

불이선회는 산철마다 4박 5일씩 월암 스님과 걸출한 스님들을 모시고 선(禪)에 대한 강의와 실참으로 진행되는 선회이다. 바쁜 일상에 백중과 정월기도 끝이라 몸은 지치고 힘들어도 이 선회를 다녀오면 승려로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출가의 목적이 더 확실해지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길에서 나눌 수 있는 공간, 안양 행복선원 포교당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고마운 건 나와 같은 스님들과 나눈 공감대와 교류였다. 마치 잔뿌리처럼 뻗어 서로 엉키며 홀로 지탱하며 서 있던 나무가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땅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해 주는 느낌이다.

'참 좋은 모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정목 스님께서 박문호 박사와 함께하는 승가 과학공부 모임을 만드셨다. 명상과 관련이 많은 뇌과학이 시작이라 한 번 해봄직하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삼년결사로 매주 금요일마다 3시간씩 지질, 천체, 생물학, 역사를 총망라해 심도있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어려운 수업이어서 중도 포기자도 있었지만, 정목 스님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셨다. 매 수업 미리와서 스님들과 예습, 복습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삭발에 의복까지 갖춰입고 수업에 임하셨다. 그리고 스님의 그 모습에 많은 스님들이 함께 하셨다. 그제야 공부가 마음에 들어왔다. 박문호 박사의 '대칭화, 모듈화, 순서화'의 공식이 과학을 넘어 불교와 삶 그 자체에도 적용되었다. 삼년결사의 회향 모임은 신라의 역사공부와 포항공대 방사광 가속기를 견학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역사와 과학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박문호 박사의 강의를 통해 공부하는 법을 배웠고, 정목 스님을 통해 공부하는 자세를 배웠으며, 함께하는 스님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환희로 남았다. 수행에 있어 스승과 도반은 수행의 전부라고 말한다. 포교당에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수많은 길에 그저 한 부분을 맡고 있을 뿐이다. 그 수많은 포교당이 천수천안의 눈과 손이 되어 오늘도 전법을 한다.



시현 스님
안양 행복선원 주지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⑫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공고명(工巧明)'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불교적 성찰을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불교로 읽어보려 한 것이 벌써 12번째가 되었다. 한 고비를 정리하며 숨고르기를 할 때이다. 변명이라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화려함과 장밋빛 미래를 어설프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합리화라면, 물질만능 시대의 휘황찬 영광의 뒤안길을 파헤치며 정작 살펴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대관세찰(大觀細察)의 균형있는 시각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로 과학만능의 신화가 합당한 것인지 점검하였다. 정작 연장치료, 성적자기결정권, 안락사, 생명복제 등 첨예한 문제는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편으로는 당연시하며 지나쳐 온 상식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명과 질환 등의 개념들을 짚어 보았다. 일상화된 질병들의 배후에 어떤 인식적 토대가 놓여 있는지 두드려 본 것이다. 이로써 생명현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과학철학의 입장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다.

우리시대의 과학 철학은 인식론으로 전향하였다. 이에 반해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는 첨단기술의 영역이기에 철저히 현장의 기술로 치닫고 있다. 향후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음은 물론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고서야 성찰의 시선을 찾을 것이다. 그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철학적 시선은 뒤늦게 회복할 사인이 아니다.

불교 五明 중 '工巧明' 적용 가능
기술, 공예, 음양 등 익히는 과정
스님들 바이오테크놀로지 학습을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논의 필요

불교의 다섯 가지 지혜인 오명(五明) 가운데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공교명(工巧明)에 배속시켜 검토할 수 있다. 공예(工)적 정교함(巧)을 뜻하는 공교한 지혜(明)는 기술, 공예, 음양, 역수 따위에 관한 학문으로 불교 수행자들이 익혀야 하는 덕목이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기술 습득으로 해석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이 공교명과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상관성을 인식의 전향으로 읽고자 에둘러 설명한 것이다.

〈굉지선사광록〉(宏智禪師廣錄)에는 인식의 전향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선적 표현이 있다.

경계를 빼앗는 것은 당나귀가 우물을 들여다 보는 것과 같고/ 사람을 빼앗는 것은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삼천 세계와 백억의 몸이 있다고 하여도/ 별도로 안배할 필요 없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옳으니!

(奪境也如驢覷井 奪人也如井覷驢 三千世界百億身不用按排只者是 ; T48, 39a25-27)

인식대상과 인식주체로 이분화시키는 탈경(奪境)과 탈인(奪人)의 문제는 선의 이해라는 주제로 제한시켜 적용할 것만은 아니다.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驢覷井)과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井覷驢)은 이항대립되어 진영의 논리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상계를 긍정하고자 별도로 어떤 것을 안배할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시금 원칙을 돌아볼 때이다. 신체는 불국토의 기호에 해당한다. 가려움과 통증은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분할적 증상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의 문제이다. 신체적 자극이 미약하면 가려움이고 역치 이상의 자극은 통증으로 파악하는 것이 감각이다. 이항적 구조는 사회와 정치로 확장시켜 한반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성도재일, 우리 삶 비추는 거울

2025년 을사년 1월 7일(음력 12월 8일)은 성도재일이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로, 불교가 시작된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연등 행렬과 봉축 행사가 펼쳐지는 부처님오신날과는 달리 성도재일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깨달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성도재일의 가치는 부처님오신날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말이다.

약 2600년 전 부처님은 세상의 고통을 목격한 뒤 출가해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고행을 이어가던 부처님은 극단적인 수행만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알게 됐다. 그리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을 통찰하고, 번뇌에서 벗어난 해탈의 길을 열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에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행복과 평화의 길을 제시한 위대한 전환점이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빠르게 변화하며 경쟁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홍수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면은 더욱 고립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멈추고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성도재일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부처님이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강조한 것처럼 일상에서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도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가령, 아침 햇살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환경을 지키는 행동을 실천하는 등 소소한 노력이 바로 성도재일의 정신을 이어가는 방법이다.

새해의 첫 달,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성도재일의 의미는 더 빛을 발할 것이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가족과 함께하는 삶',
3m서 추락하며 산산이 부서진 꿈

줌머인 차크마 수실 씨, 한국 동경해 입국
3m 높이서 떨어지며 양발 뒤꿈치 골절상
최소 6개월 치료 필요…부상에 일할 수 없어
아내·아이와 한국서 살고 싶어…생계 문제로 위기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연말연시, 공부·수행 점검 시기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12월의 세모가 되면 송구영신의 인사가 오간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위로를 건넨다. 요즈음 통신매체가 전자화되어 종이 연하장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짧고 빠른 시간에 수십 명의 벗에게 디지털 연하장을 보내고 받으면서 서로 감사를 교환한다. 문자나 디지털 연하장을 주고받으며 지난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대다수 현대인이 보내는 연말연시의 모습이다.

해의 길이나 기온의 따뜻함과 추움 등을 경계 삼아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하는 연말연시는 늘 돌아온다. 전통 시대에는 대체로 농사를 시작하는 음력 정월이나 입춘과 농사를 끝내는 음력 11월의 중동(仲冬) 사이에 그 시작점을 삼았으나 양력을 주로 사용하는 현대의 연말연시는 동지를 열흘 정도 지난 뒤 가장 추운 때이다.

연중 가장 추운 이때 불교 경전에서는 이 시기를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 하고 있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 붓다께서 추위로 인해 몸이 불편하였다. 사람들은 '붓다께서는 신력이 무량하고 위력과 덕이 높고 높아 말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고통을 받는가'라고 질문하거나, 또 '동지 전후 8일 밤에 찬바람이 파죽지세로 불어 삼의(三衣)로 추위를 막는다'라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당시 불교에서는 추위가 극심한 이 시기를 삼기(三忌/紀, 45일)라고 하며 '재계(齋戒)하라'고 가르친다. 동지 이후 45일간을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날(재일)로 수용한 것이다.

원효 스님 "죽음 순식간, 수행하라" 강조
동지 이후 45일 재계하는 재일로 수용
연말연시, 나의 공부 점검 시간 삼아야

또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는 재일에 귀신이 많다고 하며, 재계하고 보시하며, 1일 동안 청정한 행을 행하면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재일은 삼가고, 근신하는 날인데, 연말연시는 동지 이후 삼기의 첫 기일(紀日, 15일)에 해당하며, 이 기일을 재일처럼 정진하는 것이다. 이 동지 8일 뒤는 현대의 연말연시 기간인데, 불자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알려준다.

지난 한 해의 묵은 빚을 갚고, 맞이하는 새해에는 좋은 업을 쌓자는 연말연시의 교훈에 다시 수행을 점검하는 시기라고 깨우치고 있다.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이렇게 경책한다. "한 시각 한 시각이 지나고, 밤낮이 빨리 지나 한 달 한 달이 바뀌고 바뀌어 문득 다음 해가 이르고, 다시 한해 한해 지나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니 부지런히 수행하여라."

지난해를 정리하고 오는 해를 맞이하는 시기를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수행하라는 것이다. 연말연시는 단순히 한 해를 보내고 다음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자의 수행을 경책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해서 연말연시는 나의 공부가 얼마나 잘 진척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원효 스님은 "부서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듯이 늙은 사람은 수행하기 어렵다. 급하고 다급하다"라고 하며 수행하라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렇다. 불자에게 연말연시는 몸과 마음을 닦아 추위를 이겨내며, 지나간 한해의 업을 살펴 반성하고 참회하며 마감하고, 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업을 짓자고 다짐하며, 나의 공부, 나의 수행을 점검하는 때라고 하겠다.

한국 정치, 중도와 연기에 주목을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꽃은 피우기 위해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비탄과 불안으로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가슴에 다 나온다. 지금 한국 사회는 비탄과 불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는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아득한 느낌이 든다.

새삼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가 떠오른다. 올리히 벡은 한국불교에 깊은 애정을 갖고 법명도 받았다. 그는 21세기 사회를 위험사회로 진단하였는데 그 위험의 요인이 바로 인간이 만든 근대화 문명으로 본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불화산이 되어 지구촌을 덮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다.

〈위험사회〉를 읽으면서 깊은 공감을 했으나 그래도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험의 파고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덮치고 있다. 그리고 그 제일 큰 원인이 바로 정치이고 정치인이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바로 정치적 존재라는 뜻이다. 인간의 삶의 양식은 정치적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분단과 6·25 전쟁 등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사례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를 어쩌랴. 지금은 혼돈의 늪에 빠져 온 국민이 불안과 우울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 원인의 근본은 한국 정치가 탐진치(貪瞋癡), 즉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美에릭 리우 등 '정원형 지성' 주장해
구성원 상호호혜적 연대 기반에 초점
연기적 지성과 중도 결합된 정치 필요

붓다의 핵심 가르침은 탐진치를 소멸하고 삶의 고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탐진치 소멸은 결코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정치체제나 그 정치 구성원들이 탐진치에 빠지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 그것은 개인의 업을 넘어 공업(共業)의 차원으로 확대된다. 민주주의 모범으로 불렸던 미국, 유럽 등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와 붕괴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민주적 정치 생태계를 바르게 정립하려는 여러 방안도 제시 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에릭 리우(Erich Liu)와 닉 하나우어(Nick Hanauer)의 공저인 〈민주주의 정원(The Garden of Democracy)〉에 깊은 공감을 가진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원형' 지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바로 '연기법'과 '중도'에 바탕한 정치이다. 사회 구성원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호혜적이며 네트워크화되어 상호의 존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정원형 지성'이다. 모든 생명체가 함께하는 정원을 가꾸는 마음이 바로 정원형 지성이다.

붓다 정치철학의 핵심은 자비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문화와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구성원의 연기적 지성과 중도가 결합된 정치이다. 지금의 비탄과 고통이 한 송이 국화꽃이 피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社 說

불교계, 여객기 사고 치유 마음 모으자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연말을 맞아 부모와 자녀, 친구와 함께 올랐던 즐거운 여행길이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사고 직후 불교계는 언제나 그랬듯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고 직후 애도문을 발표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분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원하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하고, 구조된 생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천태종을 비롯한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지도자스님들도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다. 또한 정치권에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사고 다음날인 12월 30일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진우 스님은 분향을 마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절망하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해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등 전국 사찰에도 분향소가 마련됐고, 12월 31일 초하루법회에는 전국 사찰에서 희생자 추모 명종(鳴鐘) 5타, 묵념과 함께 영가 추모 기도가 진행됐다.

유가족들을 위한 현장 지원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무안공항에 간식부스와 주차장에는 차와 음료를 제공하는 부스를 설치해 유가족의 마음을 달랬다.

종파를 초월해 불교계가 보여준 추모 물결은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보여줘야 할 모범적인 모습이었다. 불교의 자비(慈悲)는 자(慈)와 비(悲)의 합성어다.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며, '비'는 연민의 마음으로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비는 대승불교에서 모든 수행의 근본에 있다.

세밑 안타까운 참사, 불교계 추모 물결 빛났다
희생자 49재, 유가족 심리 치유 등도 진행돼야

고려 고승 보조국사 지눌 스님은 〈정혜결사문〉에서 "수행자는 먼저 남을 구제할 서원(誓願)을 세워 선정과 지혜를 닦고, 도의 힘이 모이면 자비를 구름처럼 펴서 영원토록 고뇌하는 일체의 중생을 구제"할 것을 강조한다.

현대의 달라이 라마 역시 "자비는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자 도와주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자신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자비를 행하라"라고 설파했다.

어찌 보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이 같은 공감능력이 현대사회의 자비일지 모른다. 세밑에 일어난 안타까운 참사, 이를 잘 보듬어 치유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다. 희생자들의 49재부터 유가족 심리 치유와 물적 지원까지 불교계가 앞장서 진행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2025년 1월 8일 오전 12시 서울 일붕선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1월 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삼론종은 2025년 1월 13일 오전 10시 포천 보문정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1월 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1월 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푸른 뱀의 해, 청사의 해입니다.

푸른 뱀은 주변을 잘 살피고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 모습에서
지혜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길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최선을 다하며 전진해 나가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정기후원신청 02-734-8059

환자치료비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